



모바일 버전
QR코드

7년 여정 플랫폼 준비에 관하여

찬미받으소서

행동

Laudato Sí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



‘찬미받으소서’ 행동 자료집을 내면서

사회사목국장 조병길 이시도로 신부

일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 했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인류 전체를 아직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못지않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미 우리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 후에는 이것을 다시 회수해 없애거나 확산을 차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코로나19처럼 격리나 백신, 처방약 같은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인류가 누려온 문명적 혜택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 사용에 의존해 있고, 이것이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자각한 사람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예견된 재난'을 막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비상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 '지구를 위한 회년'을 살도록 2021년 5월까지 특별 주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찬미받으소서'에 비추어 앞으로 7년의 여정 동안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지 선택하도록 초대하십니다.

※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 7가지 영역¹⁾과 7가지 목표²⁾

2020 추계 주교회의에서도 회칙 '찬미 받으소서' 반포 5주년 후속 장기 사목 계획을 위한 '특별 사목교서 실천지침'을 만들어 가정과 본당, 교구의 구체적 실천과 연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 교구도 '코로나19와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몇 개월 동안 회의 및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를 종합한 자료집입니다. 특히 본당과 가정에서 생태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7년 여정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초석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디 많은 본당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웃과 자연 생태계, 미래세대까지 시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부터 실천'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서로 연결될 때 미래의 희망을 향한 지속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래와 같은 라틴어 속담이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지혜가 되었으면...

'Festina Lente'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 하지만 번개 같은 결단력을 가지고 한 걸음씩 앞으로 가자'라는 뜻

1) 7가지 영역

① 가정 ② 교구/본당 ③ 학교 ④ 대학교 ⑤ 병원/의료시설 ⑥ 기업/농업 ⑦ 수도회

2) 7가지 목표

① 지구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 ②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
③ 생태 경제학 ④ 단순한 삶으로의 선택 ⑤ 생태교육 ⑥ 생태 영성
⑦ 지역/지방/국가/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찬미받으소서' 행동

7년 여정 플랫폼 준비에 관하여

머릿말 3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6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7

찬미받으소서

찬미받으소서 흐름 10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의 의미 11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의 목표 12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에서 고려해야 할 점 14

한국 주교회의 특별담화문 15

구체적 실천

가정 20

본당 22

교구 24

참고자료

생태신학 29

관련 다큐멘터리 / 동영상 소개 37

관련 사이트 / 단체 소개 42

추천 도서 44

생태달력 50

부록 53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으로 빚으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나이다.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현존과 온유로 충만하나이다.
찬미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주님에게서 만물이 창조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모 마리아께 잉태되시어
이 땅에 속하시며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분의 영
광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 계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빛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하시
나이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저희 마음 안에
머무르시며 저희를 선으로 이끄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삼위일체이신 주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의 놀라운 친교를 이루는 분이시니
모든 것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세계의 아름다움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 대하여
저희가 찬미와 감사를 드리도록 일깨워 주
소서. 저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적 일치
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맞맞은 자리를 보여 주
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나이다.
권력과 재물을 소유한 이들을 깨우쳐 주시
어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에 호의적이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이 땅이 절규하고 있나이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받으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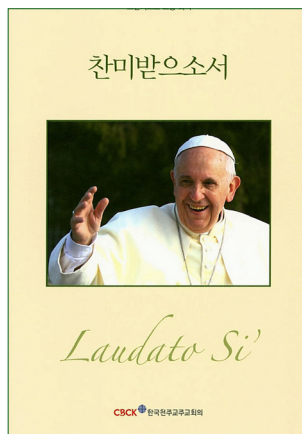
Laudato si

찬미받으소서

회칙 '찬미받으소서'

2015년 6월 18일 반포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교회의 생태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교회 첫 환경회칙입니다.

[전체적 흐름]



목적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

기본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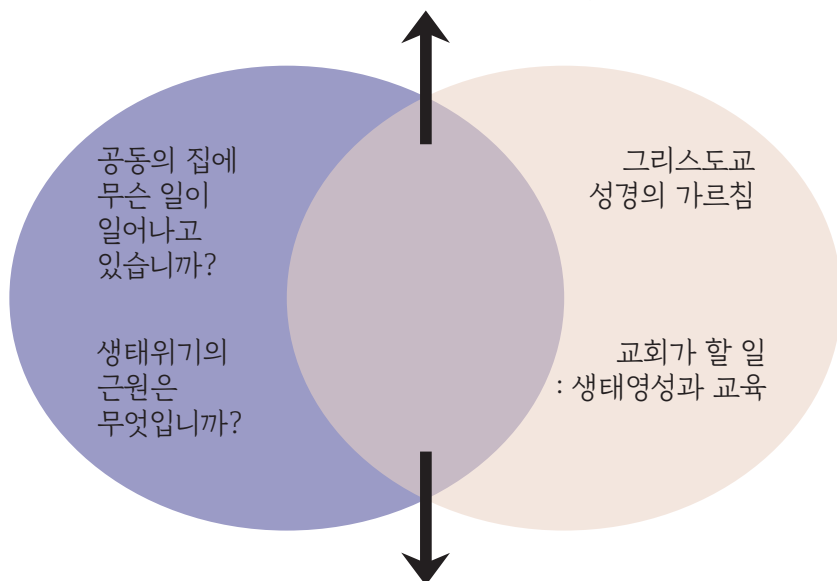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네트워크, 자연이 아프면 결국 인간도 아픔)

구조

관찰, 반성, 판단, 실천

내용

대화를 통한 정책수립적 접근(국내, 국제)



통합 생태적 접근(사회, 경제, 문화, 일상생활)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의미

'찬미받으소서'의 통합 생태론의 정신을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찬미받으소서' 다 개년 행사 계획입니다.

기본 목표

'찬미받으소서'에 비추어 생태적 회심을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

기본 방향

'찬미받으소서'의 내용에 비추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길잡이와 안내 프로그램

- ① 이 플랫폼은 7년의 여정으로 진행됩니다.
- ② 이 플랫폼은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 ③ 이 플랫폼은 7개 영역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가정/교구_본당/학교/대학교_대학/병원_의료시설/기업_농업/수도회)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실행방법

- ① 7개 영역 기관들이 통합생태론 7년 여정 참여 초대
- ② 2021년 초 (특별기념의 해 종료시점_ 2021. 5.24) 플랫폼 실행(준비된 기관)
- ③ 2022년 또 다른 기관의 7년 여정 참여
- ④ 매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두 배씩 참여 단위 확대
- ⑤ 향후 10년간 위와 같은 방식을 반복(10년간 새로운 단위의 참여 가능)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목표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화석 연료를 줄이기, 생물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기, 모든 이가 깨끗한 물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등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원주민 공동체, 이민, 신종 노예의 위험에 놓여 있는 어린이 등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임신에서 죽음까지 인간 생명을 수호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기



생태 경제학

지속 가능한 생산,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윤리적 투자, 화석 연료와 지구와 사람들에게 해로운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 철회, 재생 에너지 투자 등





검소한 생활 양식 채택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절제, 곧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삼가기,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기르고 육류 소비를 줄이기, 최대한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공해를 일으키는 교통수단 이용 삼가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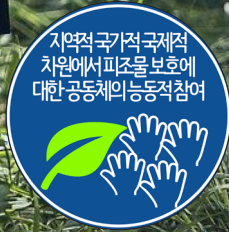
생태 교육

생태적 인식을 진작하고 그 구체적 행동을 북돋우며 젊은이들과 교사들과 교육계 지도자들의 생태적 소명을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통합 생태론에 비추어 교육 과정을 재검토 재정립하고 교육기관을 개혁해 나가기 등



생태 영성

하느님의 피조물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 회복하기, 경탄과 찬미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연을 더 많이 접하도록 장려하기, 피조물에 중점을 둔 전례 거행 촉진하기, 생태 교리 교육, 기도, 피정, 교육을 개발하기



지역, 국가, 국제 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장려하기, 지역과 이웃 생태계 안에 생태 의식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도록 장려하기 등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준비에서 고려해야 할 점

① 7년의 여정

긴 시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실행 전에 충분한 논의와 점검을 동반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② 준비, 충분히 보고 듣는 기간

교황청 문건에서도 확인이 된 바, 행동 플랫폼은 1년간의 '찬미받으소서 특별 주년' 안에서 여러 논의들을 통해 구체화 됩니다. 현재 다른 해외 교구, 수도회에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학술적 이론적 토대 안에서 행동의 당위성과 실천의 가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논의를 확장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으고 들을 수 있는 자리들을 우선 먼저 많이 가져야 합니다.

③ 확장성의 확보

행동 플랫폼은 일곱 가지 영역의 단위에게 특별히 초대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고유한 실천 양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생태적 회심에 참여하도록 인도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점검과 실천과는 별개로 교회 외 단체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선제적 실천을 통한 모범적 운동으로 향후 여러 단체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④ 선명한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필요한 행동이라고 해도 매력적인 어필이 없으면 실천으로 유도되기 힘든 세상입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돋보일 수 있는 가시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홍보와 안내에 용이한 정제되고 준비된 메시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메시지를 통해 여러 매체를 활용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⑤ 선택과 집중

다양한 방식으로 찬미받으소서 실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실천들을 담보하여서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교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정하여 특별히 더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을 확정하여 준비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교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단체들의 역량을 존중하면서 함께 연대합니다.

⑥ 즐겁고 기쁘게

긴 시간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그 실천이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당위적 가치만으로는 실천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실천을 가능케 할 작은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과정이 소중하게 필요합니다.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

특별사목교서
실천지침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백성에게 참으로 아프고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과 방역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을 아끼지 않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하느님의 도움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에서 코로나19로 이어진 감염증 확산 사태는 현대 물질문명이 큰 전환기에 와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사회의 모든 소통과 활동과 관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단순히 의학적, 경제적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현대文明 전체의 구조와 균형 안에서 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자연을 무제한으로 개발하고 소비하고 폐기해도 되는 소유물로만 보고 피폐시키고 약탈해 온 결과입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반포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견하며 현대 물질문명의 폐해를 명백히 지적한 예언적 가르침이었습니다. 회칙 서두에서 교황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 그리고 폭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인 지구가 황폐해지고 울부짖고 있다며 비탄하셨습니다(「찬미받으소서」, 2항 참조). 이 회칙은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찬미받으소서」, 160항)라는 엄중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 모두 ‘생태적 회개’에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칙이 반포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 지구는 끊임없이 훼손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지구 생태계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울부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후 위기 상황과 우리나라의 안이한 대처

2018년 10월 8일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제48차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1.5도 특별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앞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로 줄여야 하

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이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는 원래 기후로 되돌아갈 수 있는 탄력을 잃어버려 결국 지구의 모든 생태계는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세계적인 분석 기관인 ‘기후 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2016년에 우리나라를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지적하였습니다. ‘기후 악당 국가’는 기후 변화에 무책임하고 나태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까지도 화석 연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7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배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친환경 뉴딜 정책에는 기후 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의 획기적인 감축 전망과 전략은 찾아볼 수 없고, 디지털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효율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녹색 성장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별 기념의 해와 7년 여정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2020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한 해를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하고, 2022년부터는 「찬미받으소서」가 제시하는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을 출범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지역 교회의 가정, 본당과 교구, 수도회, 학교, 병원, 기업과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 7년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2020-2021년의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와 그다음 이어지는 7년이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때’(kairós)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은총을 실제로 체험하는 ‘희년’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활동

내년에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조선의 첫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께서는, 조선의 백성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천연두의 유행으로 어린이들이 죽어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 병을 퇴치할 처방을 알려 달라고 프랑스 선교사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가정자 최양업 신부님도 비위생적인 물 때문에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과 백성을 위하여 물을 정화하는 처방을 알려 달라고 프랑스 선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초대 교회의 두 기둥은 고통과 환난에 시달리는 양 떼를 위해 동분서주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서도 그동안 생태계 안에 아로새겨진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자 ‘환경의 날’, ‘농민 주일’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등에 지속적으로 담화를 발표하며,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안내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2020년 5월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기념하며 “기후 위기,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회개와 다짐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찬미받으소서」, 49항)에 귀를 기울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마태 28,18-20 참조)는 교회의 선교 사명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지만, 기후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피조물들의 고통에는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힘 있는 이익 집단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 희생되는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지 못했으며, 생태계 파괴 현장을 보면서도 피조물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기후 변화에 관하여 차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찬미받으소서」, 52항)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며 복음을 선포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과제

우리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파멸로 치닫는 지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식 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에너지를 무한정 소비해 왔던 나날을 깊이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도 보편 교회와 한마음으로 7년간의 생태적 회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후 위기와 어머니 지구의 울부짖음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각 교구는 사목 교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태적 회개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각 본당과 위원회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교구와 단체에서 수행해 나갈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생태적 회개’는 현시대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시대적 징표이며, 피조물 안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회개가 단지 ‘환경보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모든 사목 분야에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로 승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모후이신 성모님!

이 철쭉 같은 어둠의 시간에 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는 저희를 저버리지 마소서.*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를 마치며
한국 천주교 주교단



구체적 실천

물

아껴 씁니다

- 양치질, 면도, 설거지 할 때는 물을 받아서 하기
- 샤워시간 줄이기/샤워기 절수형으로 교체
- 버려지는 싼뜨물 활용하기(EM사용)
- 수도꼭지는 찬물 쪽으로 돌려 놓기
- 빨래는 모아서, 양말이나 내의는 손빨래

깨끗이 씁니다

- 세제 사용량 줄이기
- 천연 수세미로 설거지 하기
- 기름기는 냅킨이나 신문지를 사용하기
- 친환경 세제 사용하기

에너지

대안을 찾습니다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 냉장고 사용 지도 만들기
- 1주일에 한 번 '에너지 안식일' 지키기
- 겨울철에는 내복 입기
- 가족 간의 대화로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 새 차 구매시 친환경 차량 구매하기

아껴 씁니다

-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씁니다.
- 자동차, 전자제품도 휴식을 줍니다.
- 사용하지않는 전자제품 플러그는 반드시 빼기
- 냉난방 적정 온도 유지하기
(냉방: 26~28도 / 난방: 18~20도)
-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 사용을 최소화하기

음식

달리 먹습니다

- 국산 농산물 애용하기
- 텀블러 사용하기
- 수산물 구매시 MSC, ASC 마크 확인하기
- 음식을 먹을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 과대포장 식품 구매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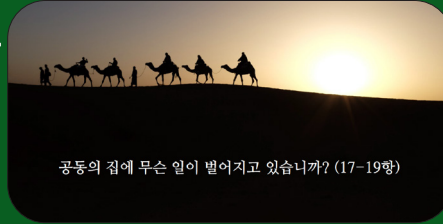
MSC: 지속가능한 어업에 부여하는 인증
ASC: 지속가능한 양식업에 부여하는 인증

아껴 먹습니다

- 냉동이나 인스턴트 음식 소비 줄이기
- 육식 소비 줄이기 / 소식 하기
- 책임있는 식습관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식당에서 남긴 음식물 가져와 먹기
- 커피 / 탄산음료 소비 줄이기

[성찰카드] 사진으로 읽는 <찬미받으소서>

예수회인권센터에서 제공하는
성찰카드입니다.
하루를 '찬미받으소서'로
마음에 새기시는 것은 어떨까요?



스테파노씨의 친환경 하루

태양광으로 충전한 시계 알람으로 시작된 하루,
어제 버리지 않고 모아둔 세숫물을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물을 절수 할 수 있는 절수형 샤워기로 빠르게 샤워한다.
소박하지만 제철 채소 식단으로 든든한 아침을 먹는다.
집을 나서기 전, 각종 전자기기 전원을 off한다.
평소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지만
출장이 예정된 오늘은 친환경 탈거리로 근처 동료와 카풀로 출근!!

사무실은 실내 적정 온도(냉방: 26~28도 / 난방: 18~20도)로 유지되고
휴식시간에 차를 마실 때는 자신들의 텀블러를 사용한다.
회사건물 옥외에 설치된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사무실 조명 등 필요한 전기 에너지로 사용한다.
사내식당은 친환경으로 재배된 먹거리들로 운영되며,
자발적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를 따로 제공한다.
물론 모든 식기류는 일회용품이 아닌 친환경 식기!!

퇴근 후 요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최소화 되도록 조리한다.
쌀뜨물과 EM을 이용하여 천연 세제를 만들고
천연 수세미로 설거지 한다. 물론 물은 아껴서!!

태양광으로 충전한 시계의 알람을 확인 한다.
아침!! 내일은 휴일 '에너지 안식일'로 지내는 날이다
조용히 알람을 off 한다.



나의 탄소 발자국
계산하기!!



교육

- 신자들을 위한 생태신학/영성 특강 마련하기
- 본당 소모임에서 「찬미받으소서」, 환경에 관한 교회 문헌이나 교종님 말씀 읽기
- 생태와 환경에 대한 성찰카드 만들어 신자들에게 배부하기
- 생태환경 관련 교육 - 기후, 에너지, 먹거리, 소비생활 등 - 제공하기
- 생태환경 테마를 주일학교나 예비자 교리 과정에 넣기
- 생태/환경 관련 전례, 기도, 피정, 체험 개발하기
- 일상에서 실천 길라잡이: 매일/주간/매달/매년 (환경 달력에 맞추어서)
- 1본당 1농민 연대: 도시농부 양성 교육 과정 열기

실천

- 생태분과 신설 및 월례미사 거행하기
-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과 창조시기를 내실 있게 거행하기
- 자동판매기 없애기
- 신자 각자가 처리하기 번거로울 수 있는 폐휴대폰, 아이스팩, 스티로폼, 건전지 등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지역사회에도 알리기
- 본당 내에서 일회용품과 에너지 과소비 줄이기
- 생명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아나바다 장터 열기
- 태양광 패널과 절수기 설치하기
- 성당에 초록 쉼터 조성
- 인쇄물 줄이고 필요하면 재생용지 사용하기

본당

■ 살퍼볼 사례 : 정발산 본당 "환경생태 위원회"



정발산 본당 환경생태위원회는

매월 실천사항을 정합니다.

실천사항이 정해지면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고 본당에서 적극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합니다.

이전 활동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BMW(버스+메트로+워킹=대중교통 이용하기)운동' 등은 호응이 좋았던 운동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미사에서 영상을 보여주고 공지사항 시간에 관련 실천을 나눕니다.

본당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삶에서, 환경에서 꾸준히 살피서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생태적 회심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https://youtu.be/dzFhuy7oYtg>



플라스틱

<https://youtu.be/JPiRH0iJtiA>



Laudato si

-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구축하기
- 본당 생태분과위원 및 신자들을 위한 교육과 피정 프로그램 개발하기
- 생태신학/영성 연구모임이나 학술발표회 개최하기
- '찬미받으소서' 등 생태관련 필독서 선정
- 주일학교 교사 생태교육 이수 의무화
- SNS를 통해 '찬미받으소서' 성찰카드(생태/환경 관련) 정기적 지속적으로 보내기

교육

- 교구 내의 본당이나 기타 소유 건물의 친환경 신축 혹은 리모델링 지원하기
- 교구 자산의 화석연료 기업 투자 철회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기
- 교구청 내 사무 및 행사에서 에너지와 자원 소비 줄이기
- 태양광 등을 통한 자가발전 시스템 설치하기
- 탄소포인트제 참여하기 (이후 본당과 가정에도 참여 권고하기)
- 매일 저녁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치기
- 친환경 재정 집행을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

실천

- 다른 교구의 환경사목위원회와 연대하기
- '1본당 1농민 연대'를 통한 도시농부 양성하기
- 지역사회의 환경단체와 연대하기
- 기후위기 관련 청원에 동참하기
- 기후 재난에 취약한 지역사회 주민들 돕기
- 교구 차원의 생태, 생명 미사, 홍보 활동
- 교구 차원의 생명보전수호를 위한 상담소, 직업훈련 시설 운영/관련 전문인력 양성

연대

■ 살피볼 사례 : 수원교구 '기후행동' 챌린지

수원교구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 24일까지 지구를 구하기 위한 9가지 방법 인증하는 릴레이 '기후행동'챌린지를 시행하고 있다. 지구를 구하는 9가지 방법은



- △소유 대신 공유하기
- △쓰레기 제로 실천하기
- △저탄소 인증 제품 사용으로 탄소 발자국 줄이기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쓰지 않기
-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하기
- △걸거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 △전기 사용량 줄이기
- △종이 금식 실천하기
- △매일 정오 '찬미받으소서' 공동기도 봉헌하기이다.

즐거운 실천을 위한 우리의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 살피볼 사례 : 인천교구 '탄소포인트제' 협약

인천교구는 2020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 가스 감축활동 확산을 위하여 신자 가정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도록 교구 차원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생태신학

이다한 스테파노 신부 OFM Conv.

1. 생태신학의 간략한 정의

- 신학: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 관한 학문
- 생태신학: 자연세계를 하느님과 관련 지어 신학 탐구의 중심주제로 삼는 신학
- 생태신학 ≠ 창조신학/창조론 → 창조신학/창조론은 생태신학의 탐구주제 중 하나
- 생태신학은 포괄적인(inclusive) 신학이며, 재해석의 신학이다.

2. 생태신학의 등장 배경¹

1) 지적 배경

- 신학의 세 가지 핵심 테마: 하느님, 인간, 자연세계(피조물) → 교부 및 중세 신학은 서로 밀접히 관련된 이 세 테마를 함께 다루었지만 근대, 특히 종교개혁 시기(16-17세기) 이후로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 모두 자연세계(피조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다른 두 테마인 하느님과 인간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① 근대 과학 및 우주관의 태동(예: 갈릴레오의 지동설): 교회 지도층과 신학자들은 우주와 자연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지식, 근대 과학이 탐구하고 새롭게 발견한 우주와 자연의 모습과 건설적으로 대화하고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무시하면서 성경에 대한 기존의 문자적 이해를 고수했다.

② 종교개혁: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에 바탕을 둔 개신교 신학은 인간의 죄와 구원/의화에 관한 주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개신교 신학에 대한 반응으로 가톨릭 신학 역시 같은 주제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 이런 식으로 자연세계는 신학 안에서 무시 및 간과되고 과학과 기술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었다. 신학은 인간 영혼, 구원과 같은 영적인 문제들에만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 자연세계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신학적 해석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몇몇 현대신학자들이 인식하면서 자연세계를 다시 신학의 핵심 테마로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2) 윤리적 배경

- 인간이 야기하고 악화시킨 갖가지 지구 환경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커졌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방면으로 전개되면서 종교 역시도 그러한 노력에 기여하도록 요청 받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종교는 신앙인들을 생태적 회개로 이끌면서 그들이 가져야 할 생태적 책임과 헌신의 신학적 의미를 밝혀주어야 한다. 즉, 왜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고 생태적 책임과 헌신을 가져야 하는지, 그러한 책임과 헌신이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 생태신학 등장의 두 배경과 관련해서 오늘날 생태신학 탐구가 특히 고려해야 할 것

¹ Elizabeth A. Johnson, “Turn to the Heavens and the Earth: Retrieval of the Cosmos in Theology,” in *Turning to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ological Reflections on a Cosmological Conversion: Essays in Honor of Elizabeth A. Johnson*, ed. Julia Brumbaugh and Natalia Imperatori-Lee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16), xxix-xxxviii; Denis Edwards, *Ecology at the Heart of Faith* (Maryknoll, NY: Orbis Books, 2014), 1-2.

① (지적 배경과 관련해서) 현대 과학: 갈릴레오의 지동설과 같은 근대 과학의 발견들이 당시 신학에 새로운 질문과 관점을 제기한 것처럼, 빅뱅 우주론, 진화론과 같은 현대 과학의 발견들은 오늘날 신학에 새로운 질문과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근대의 과학적 관점과 건설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무시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학은 하나님, 창조, 예수님의 구원 등과 같은 전통적인 신학 주제들이 어떻게 현대의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의 틀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

② (윤리적 배경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교의 생태위기 책임에 대한 비판: 역사학자 린 화이트 주니어는 그리스도교가 가장 인간중심주의적인 종교로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우월감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할 패권을 준 현대 과학과 기술의 부상에 영향을 주었고 따라서 생태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² 그의 주장이 비록 지나치게 단순한 창세기 해석에 근거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교 사상은 인간중심주의적 색채가 짙으며, 서구 문화 안에서 현대 환경위기를 몰고 온 기술 발전과 개발의 이데올로기적 근거가 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비판들에 적절히 응답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생태적 헌신과 책임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3. 생태신학의 중심 주제

- (이러한 배경에 따라) 생태신학은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현대 과학 및 환경 악화의 현실과 관련해서 생태적 지혜를 줄 수 있는 원천과 자산들을 자신의 전통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생태적 의미를 지닌 숨겨진 보화 찾기

- 생태신학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생태적 관심사들에 응답하고 생태적 회개를 통해 쇄신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4. 생태신학의 접근법³

- 생태신학은 포괄적인 신학으로서 다양한 접근법들이 있다.

- 몇 가지 예들

① 환경윤리: 인간중심주의 비판, 생물중심주의, 신중심주의, 동물윤리 등

2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 no. 3767 (1967): 1203-07.

3 Celia Deane-Drummond, *A Primer in Ecotheology: Theology for a Fragile Earth*, Cascade Companions 37 (Eugene, OR: Cascade Books, 2017), 9-17.

- ② 생태여성신학(ecofeminism): 억압받는 자연을 억압받는 여성의 문제와 연결
- ③ 생태해방신학(eco-liberation theology): 생태위기를 가난 및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와 연결
- ④ 생태영성: 프란치스코, 베네딕토, 힐데가르트, 토마스 베리, 매튜 폭스 등
- ⑤ 성경신학의 생태적 재해석: 천지창조 텍스트뿐만 아니라, 창조 혹은 피조물과 관련 있는 다른 성경 텍스트들도 생태적 관점에서 재해석 (예: 욥기, 시편, 로마서)
- ⑥ 조직신학의 생태적 재해석: 창조론,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종말론, 악의 문제와 같은 조직신학적 주제들을 생태적 관점에서 재해석 (예: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칼 라너)

5.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나타난 자연세계의 신학적 의미⁴

-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자연세계에 관한 세 가지 신학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1)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

• 회칙은 피조물의 도구적 가치, 즉 그들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데 기여하기에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을 부인하진 않는다.⁵ 다만 동시에 인간은 피조물들을 착취해서는 안 되며, 그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온건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얻으면서 또한 그들을 생각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의 의미는 피조물이 인간에게 유용한가를 떠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⁶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인용하며 말하듯이, 피조물들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며(2416항), 각각의 피조물이 그 자체의 고유한 존재로써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을 반영하고 있다(339항). 피조물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피조물들이 고유한 가치를 갖는 세 가지 이유: 하느님께서 그들 안에 현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⁷ 인간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같은 희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4 Denis Edwards, "'Sublime Communion': The Theology of the Natural World in *Laudato Si'*," in *The Natural World and God: Theological Explorations*, ed. Denis Edwards (Hindmarsh, SA: ATF Press, 2017), 99-117.

5 「찬미받으소서」 32; 67항.

6 「찬미받으소서」 69항.

7 하느님께서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는 관점은 전통 신학과 교회 가르침에선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경에 부합하는 관점이다. 예: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지혜 11,24).

8 피조물들이 어떻게 완성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마지막에 사라지지 않고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참조: 「찬미받으소서」 243-44항.

2) 피조물은 하느님의 계시

- 피조물이 하느님의 계시라는 회칙의 관점은 전통 신학의 “창조의 책” 개념 -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책을 통해 하느님을 인식 - 과 일맥상통한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창조의 책의 글자로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분의 선과 풍요함을 나타낸다.⁹ 그렇지만 어느 한 가지 피조물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분의 선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기에, 하느님께서는 (비록 여전히 부족하지만) 한 가지 피조물이 아닌 다양한 피조물들을 통해 보다 더 적합하게 당신의 선과 풍요함을 표현하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신다. 곧 다양성 안에서 피조물들은 각자의 아름다움과 특징, 그리고 서로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표현한다.¹⁰

3) 보편적 친교

- 회칙은 반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인간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다. 이 관점이 모든 것의 보편적 친교라는 세 번째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다.

-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생물학적 삶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므로,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마땅히 서로 “친교(communion)”를 이루도록 불림 받고 있다.

- “친교(communion)” 개념은 본래 삼위일체 하느님의 세 위격 간의 상호 사랑과 친밀, 그리고 성찬례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의 친교와 일치 의미를 의미하였지만, 이제는 전체 창조계도 포함하는 식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자연세계와 그 안의 피조물들은 하느님의 보편적 창조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숭고한 친교를 이루도록 불림 받았다고 회칙은 강조한다.¹¹

- 그렇지만 보편적 친교에 대한 생각이 살아 있는 모든 것이 동등하다거나 인간의 독특한 존엄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 근거해서,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뗄 수 없기에, 생태위기와 사회위기는 하나의 위기이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면에서 보편적 친교에 대한 생각은 “통합 생태론”과 연결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헌신과 책임은 생태문제와 함께 사회문제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9 「찬미받으소서」 84-85항.

10 「찬미받으소서」 86항.

11 「찬미받으소서」 89항.

6. 성찬례의 생태신학적 의미

1)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나타난 관련 내용들

- “성사들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연을 받아들이시어 초자연적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수단으로 삼으시는지를 보여 주는 특권적인 방식입니다.” (「찬미받으소서」 235항)
- “피조물들은 성찬례 안에서 가장 탁월하게 드높여집니다. 감각적인 방식으로 직접 드러나는 경향이 있는 은총은, 하느님께서 몸소 사람이 되시어 피조물들에게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 주실 때 최상의 표현에 이릅니다. 주님께서서는 강생의 신비의 정점에서 작은 물질을 통하여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닿고자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위에 서가 아니라 안에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성찬례 안에서 이미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는 세상의 핵심, 사랑과 생명이 무한히 넘쳐흐르는 중심이 있습니다. 성찬례 안에 현존하시는 강생하신 아드님과 하나되어 온 세상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성찬례는 그 자체로 우주적 사랑의 행위입니다. ... 성찬례는 모든 피조물을 품고 그 안에 스며듭니다. ... 성찬례는 또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위한 빛의 원천이며 동기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찬미받으소서」 236항)

2) 성찬례의 5가지 생태신학적 의미 제안¹²

(1) 성찬례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께로 들어올려진다.

- 예물준비기도: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 빵과 포도주: 전체 창조계를 대표하는 봉헌물로서 관계적인 자연세계 - 밀, 포도, 흙, 바람, 햇빛, 비, 곤충 등 - 및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빵과 포도주가 봉헌될 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자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께 감사의 제물로 봉헌되고, 축성을 통해 사랑의 성사의 표지로 변형된다.
- 피조물들이 성찬례 안에서 사랑의 성사의 표지가 되듯이 인간과 피조물들의 관계 역시 성사적 표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간은 창조세계에 대해 존중과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성찬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적 회개를 이끄는 장이 되어야 한다.

¹² Denis Edwards, *Ecology at the Heart of Faith* (Maryknoll, NY: Orbis Books, 2011), 99-107.

(2) 성찬례는 하느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창조 또한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이다.

- 성찬례는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에 대한 기억, 감사일뿐만 아니라 창조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기억, 감사이다.

- 초기 그리스도교 감사기도의 기원이 되는 유대인들의 파스카 기도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피조물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한다. 이를 따라 초기 감사기도는 창조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어진다.

• 현 감사기도 2양식의 예: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

- 성찬례 안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피조물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린다.

• 현 감사기도 3양식의 예: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 나이다.”

• 현 감사기도 4양식의 예: “저희도 그들과[천사들과] 함께 하늘 아래 모든 조물과 더불어 기뻐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3) 성찬례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성사이다.

- 성찬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수난은 우주 역사 안에서 피조물과 같은 한 존재, 상호 연결된 자연세계의 일부로 오신 그분께서 당신의 육체적 존재를 내어주신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찬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한 피조물과 같은 존재, 자연세계의 일부로 오셔서 당신의 육체적 존재를 내어주신 분께서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고 영광으로 들어올려진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따로 분리시켜서 구원으로 이끄는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우주 역사 내 한 존재이며, 상호 연결된 자연세계의 일부이고 육체적 존재를 가진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안에서 변형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사건이다. 성찬례는 이러한 우주적 완성 및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성사이다.

(4) 성찬례는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삼위일체의 친교에 참여하는 성사이다.

- 성찬례는 종말론적 사건, 즉 우리와 삼위일체 하느님 간의 영원한 친교를 미리 맛보는 자리이다.

- 모든 피조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해서, 그러한 삼위일체 하느님과 친교는 인간 외 다른 피조물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구의 피조물들은 우리와 함께 상호 연결되어서 하느님과 친교에 불림 받은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

- 성찬례 안에서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누릴 하느님과 친교를 미리 맛보듯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삶 안에서 동료 인간 및 다른 피조물들과 맺는 관계 안에서 그러한 친교를 실천하도록 불림 받고 있다.

(5) 성찬례는 희생자들과 연대하는 성사이다.

- 성찬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을 기억하는 성사로서, 곧 그리스도처럼 오늘날 고통 받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모든 고통 받는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기억하는 성사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러한 기억이 서로 간의 연대성, 새로운 생활 방식 및 행동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 성찬례는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 받는 지구 공동체, 그 안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면서 연대성 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생태적 회심과 행동으로 투신하도록 이끄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

• 감사기도 3양식의 예: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관련 다큐멘터리 / 동영상소개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푸른아시아, 작은형제회JPIC가
매달 주최하는 기후변화 씨네톡에서 상영한 내용입니다.


행복의 경제학

<https://youtu.be/bz8il6k2mk0>

영화와 함께 떠나는 기후여행
6월의 기후변화 씨네 토크 (Cine_talk)

the Economics of Happiness

행복의 경제학



출연: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제니퍼 사바, 빌 매기번, 중사르 키르제 노르부
감독: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리딩타임: 1시간 8분

행복의 경제학은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인류가 직면한 여러 중대한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세계화의 문제들을 다루고 건강한 행복을 찾기 위한 대안을 조망합니다.

· 일시: 2019년 6월 21일(목) 저녁 7시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2리미움
· 주관/주최: 푸른아시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JPIC, 국제기후종교시민(ICE) 네트워크
· 문의: Tel. 02-363-0927, e-mail: mujun21@gmail.com

(*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필수입니다!)

관람 신청하기

전환의 목소리

8월의 기후변화 씨네톡


VOICES OF TRANSITION (전환의 목소리)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영화 <전환의 목소리>. 영화는 지체 내 시달림에서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지만, 우리 생활방식의 여러 측면을 포함한 급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 중인 사회경제적인 페다다일의 변화를 소개하는 영화, 상영후 전환을 전문가와의 대화시간을 갖습니다.

○ 감독: Nils Aquilar
○ 출연: Rach Hepner, Mark Crawford, Claude Bergeyrou 등 농업, 생물학, 식량전문가
○ 리딩타임: 65분
○ 프로그램 내용: 영화 소개 - 상영 - 소정의 세계 전환을 이야기 - 영화소산 및 질의응답 (대중대화)

· 일시: 2019년 8월 19일(목) 저녁 7시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2리미움
· 주관/주최: 푸른아시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JPIC, 국제기후종교시민(ICE) 네트워크
· 문의: Tel. 02-363-0927, e-mail: mujun21@gmail.com

(*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필수입니다!)



신청하기

SEEDS OF TIME

제 7차 기후변화 씨네톡

SEEDS OF TIME

감독: Sandy McLeod
리딩타임: 1시간 17분



식량안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방법을 찾는 영화이다. 프랑스, 노르웨이의 스미트 종자저장소 2천년에 거슬러오르는 세계적인 농작물자 케리 파울러(Cary Fowler)는 농작물의 다양성이 식량의 미래를 담보하고, 영화 Seeds of Time은 기후변화에 맞서 전 세계 종자저장소를 지키는 그의 여정과 농민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상영 후 반동록 대표(서울 도시농업네트워크)를 모시고 우리의 토종종자와 도시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관람신청

· 일시: 2019년 8월 19일(목) 저녁 7시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2리미움
· 주관/주최: 푸른아시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JPIC,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 문의: Tel. 02-363-0927 / 010-5612-7004, e-mail: secretariat@ice-network.org

(*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필수입니다!)

남반구의 기후혼란: 피해자들의 이야기

10차 기후변화 씨네톡

Climate Chaos in the South: The Victims' story

(남반구의 기후혼란: 피해자들의 이야기)



한때는 기후변화 피해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이 되고, 비닐을 온도 상승으로 생계의 위협을 겪는 이들, 해수면상승과 빙산 태풍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화는 기후변화의 피해에서 무뎌지는 남반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한영대담: 50분)

· 일시: 2019년 7월 21일(목) 저녁 7시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2리미움
· 관람비: 무료
· 주관/주최: 푸른아시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JPIC, 국제기후종교시민(ICE) 네트워크
· 문의: Tel. 02-363-0927, e-mail: secretariat@ice-network.org

(*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필수입니다!)

관람 신청하기

REVOLUTION

11차 기후변화 씨네톡

REVOLUTION

Rob Stewart의 'REVOLUTION'은 영화로 만든 청동 조각입니다. 46년 15개국에서 촬영된 그의 후작 영화 Revolution은 생태계 파괴와 인간과 그 행위를 과학하고, 특히 형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항하는지를 다룬 영화입니다. 놀라운 야생동물의 원형, 생명의 진화 및 혁명적인 변화를 주한 감독의 아름다운 고도로 정교한 여행을 기록한 영화. (한영대담: 75분)

· 일시: 2019년 7월 21일(목) 저녁 7시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2리미움
· 관람비: 무료
· 주관/주최: 푸른아시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JPIC, 국제기후종교시민(ICE) 네트워크
· 문의: Tel. 02-363-0927, e-mail: secretariat@ice-network.org

(*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필수입니다!)

관람 신청하기

LIVE and let LIVE

'지구의 날' 기념 기후변화 씨네톡

LIVE and let LIVE

제작: Blackrabbit Images
한영대담: 75분



영화 LIVE and let LIVE는 목식을 종지한 마상사냥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 경이 그들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과 동물들의 관계, 재산주의의 허나, 태생의 윤리, 환경적, 건강상의 이유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배출량에서 18%를 차지합니다. 지난 해 10월 발표된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도 우리의 식단을 바꾸는 것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축산 소비를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화상영 후에 사회적 기업 '제식한마의 박상진 대표'를 모시고 육식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4월 25일(목) 저녁 7시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2리미움
· 관람비: 무료
· 주관/주최: 푸른아시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JPIC, 국제기후종교시민(ICE) 네트워크
· 문의: Tel. 02-363-0927, e-mail: secretariat@ice-network.org

(*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필수입니다!)

참가신청(음료) 또는



중와, 깨어진 균형 (Jungwa, the Broken Balance)

9월의 기후변화 씨네톡

중와, 깨어진 균형 (Jungwa, the Broken Balance)



감독 : 스타틴 드르제이 가이, 크리스티안 오르틀레 / 라누타임 55분

온난화로 인해 최근 일어나는 히말라야의 기후와 환경변화는 행방불명된 일상을 살아가는 라다크 사람들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2010년,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후변화가 발생했을 때, 라다크 출신 영화감독 스타틴 드르제이 가이는 오로지 온난화로 인해 히말라야에 일어나는 일을 개성 있게 담아내는 방법으로 홀리데이 필름을 만들기 위해 이들을 도우려고 보다는 상황을 영상에 담는데 한탄하는데 영화는 기후변화에 대한 라다크 사람들의 이해, 자연과 조화로운 균형을 복원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담는다.

일시 : 2019년 9월 20일(목) 저녁 7시

장소 : 청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2리미아룸

주관/후회 : 푸른아시아, 작은행채(프란치스코) JPC, 국제기후총교사민(OCC)네트워크

문의 : Tel. 02-363-0527, e-mail. mjn21@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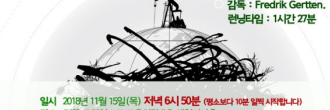
(* 간단한 자막사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해주십시오)

관람 신청하기

BIKES vs CARS

8차 기후변화 씨네톡

BIKES vs CARS



감독 : Fredrik Gertten, 안남타임 : 1시간 27분

일시 : 2019년 11월 19일(목) 저녁 6시 50분 (연말연시 11월 21일(금) 저녁 7시)

장소 : 청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2리미아룸

주관/후회 : 푸른아시아, 작은행채(프란치스코) JPC, 국제기후총교사민(OCC)네트워크

문의 : Tel. 02-363-0527, e-mail. secretariat@ice-network.org

(* 간단한 자막사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해주십시오)

신청하기

전 세계 수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주요 도시들이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정해진 도로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로부터 극찬을 받은 영화 Bikes vs Cars는 상미울루루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기후변화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전거를 선택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확보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영화상영 후에는 프랜차이즈를 모시고 우리의 자전거 이용, 자전거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AFTER WINTER, SPRING

AFTER WINTER, SPRING



"조명 덕분에 눈인 삶의 방식에 대한 물결과 서정적인 인식"

- Phoenix Film Festival

"잊지 못할, 가슴 뭉클하고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영화"

- Mak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우리의 농촌 현실처럼 프랑스의 남서부 지역 농촌에서도 이제 소수의 나이 지긋한 농부들만 남아 땅을 일구고 있다. 미국의 여성 감독 Judith Liza가 6년간 프랑스 남서부 농촌마을에 거주하면서 가래한 산업농의 위험 속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전통 농업방식을 지켜내려는 프랑스 농부들의 삶과 자연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러닝 타임 74분.

일시 : 2019년 11월 17일(목) 저녁 7시

장소 : 청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2리미아룸

주관/후회 : 푸른아시아, 작은행채(프란치스코) JPC, 국제기후총교사민(OCC)네트워크

문의 : Tel. 02-363-0527, e-mail. secretariat@ice-network.org

(* 간단한 자막사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해주십시오)

신청하기

한때 섬이 있었다 there once was an island

13차 기후변화 씨네톡

there once was an island (한때 섬이 있었다) te henua e nnoho



감독 : Biga March / 러닝타임 : 57분

태평양 뉴기니 동쪽 해안에서 북동쪽으로 250km에 위치한 타누(Tanu) 섬은 400여 명의 타누족 주민들이 사는 작은 섬입니다. 최근 해수면이 높아지자 주민들은 바닷물을 이기 위해 벽을 세웠지만, 물이기는 벽을 뛰어넘어 침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을 지탱하는 일대 주민들은 본토로 이주를 제안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섬을 떠나길 원치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타누섬의 상황이 무관심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섬의 상황이 정해져 어떤지 과학자들이 와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요청 후 2년 안에 과학자들이 섬을 왔습니다. 과연 주민들은 자신들의 섬대로 섬에 남을 수 있을까요?

영화 관람 후에는 조현호 전 국립과학사관(기후변화)을 맡고 있는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후변화"를 가져오신 분들에게만 자막사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해주십시오.)

일시 : 2019년 9월 16일(목) 저녁 7시

장소 : 청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2리미아룸

주관/후회 : 푸른아시아, 작은행채(프란치스코) JPC, 국제기후총교사민(OCC)네트워크

문의 : Tel. 010-5612-7504 e-mail. secretariat@ice-network.org

(* 간단한 자막사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해주십시오)

신청하기 (클릭)

QR코드

GUARDIANS of the EARTH

제14차 기후변화 씨네톡

GUARDIANS OF THE EARTH



라다크(북한)는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지키려는 노력의 산물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입니다. 영화는 라다크(북한)에 제공된 2019년 UN기후총회 정상회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들은 폐쇄된 문 속에서 이뤄진 선전, 개도국 협상가들 사이의 충돌과 견제, 기후협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모든 이들이 꼭 봐야 할 영화. (러닝타임 95분)

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저녁 7시

장소 : 청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2리미아룸

주관/후회 : 푸른아시아, 작은행채(프란치스코) JPC, 국제기후총교사민(OCC)네트워크

문의 : Tel. 010-5612-7504 e-mail. secretariat@ice-network.org

(* 간단한 자막사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해주십시오)

신청하기 (클릭)

QR코드

Snows of the Nile

Unacceptable Risk
-Firefighters on the Front lines of Climate change



제 15차 기후변화 씨네톡 _동시 상영

Snows of the Nile

우라티의 프랜차이즈 산은 그 정상에 5,000미터가 넘습다. 산의 정상에는 지구상의 유일한 적도 빙하가 있습니다. 1906년에 이뤄진 첫 등정 루트를 따라 두 명의 과학자와 사진작가가 산을 탐험하며, 산의 놀라운 기후와 생물다양성, 산의 빙하를 수원으로 삼아 생계를 이어온 현지 주민들의 위기를 접합니다. 러닝 타임 20분.

Unacceptable Risk - Firefighters on the Front Lines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산불로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선 미국 소방관들이 점점 증가하는 산불진압의 위험과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러닝 타임 12분

일시 : 2019년 7월 18일(목) 저녁 7시

장소 : 청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2리미아룸

주관/후회 : 푸른아시아, 작은행채(프란치스코) JPC, 국제기후총교사민(OCC)네트워크

문의 : Tel. 010-5612-7504 e-mail. secretariat@ice-network.org

(* 간단한 자막사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해주십시오)

관람신청 (클릭)

QR코드

TED로 살피는 기후변화, 환경 문제

한국어 자막이 제공되는 영상은
설정에서 한국어 자막을 선택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야기



환경 강연



Seed: The Untold Story

제 17차 기후변화 씨네톡

Seed : The Untold Story

런닝 타임 1시간 34분 출연: 빈다나 시바 제인 구말

지난 해, 우리는 영화 <Seeds of Time>을 통해서 종자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기후위기의 중요한 대응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 인류의 가장 소중한 씨앗 품종의 94%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생명공학 화학 기업들이 씨앗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 과학자, 변호사, 토착 종자를 지키려는 이들이 거대기업들을 상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벌입니다. <씨앗: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The Untold Story)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우리와 다시 연결시키고 씨앗과 관련된 문화를 복원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저녁 7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칠리아를

관람료: 무료

주관/주최: 푸른아시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JPC

국제기후총교신망(ICN) 네트워크

문의: Tel. 010-5612-7504 e-mail: secretariat@ice-network.org

(*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해주세요!)

참가신청

(클릭!)



PLASTIC PLANET

18차 기후변화 씨네톡



런닝타임 100분

감독 베르너 부데는 플라스틱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14개국을 여행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에 장난감, 생물학, 약학, 유전학 전문가들을 만나서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는 우리의 차차 산드라 크라우트슈타인 플라스틱 없이 살을 살도록 영감을 준 영화. 관심있는 분들의 관람 신청 바랍니다.

일시: 2019년 10월 17일(목) 저녁 7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칠리아를

관람료: 무료

주관/주최: 푸른아시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JPC

국제기후총교신망(ICN) 네트워크

문의: Tel. 010-5612-7504 e-mail: secretariat@ice-network.org

(*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해주세요!)

신청하기

(클릭!)



생존의 지혜: 기후변화, 자본주의, 그리고 커뮤니티

제 19차 기후변화 씨네톡

Wisdom to Survive: Climate Change, Capitalism and Community
(생존의 지혜: 기후변화, 자본주의, 그리고 커뮤니티)



런닝타임 55분

우리에게 거대한 기후변화의 위협을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기후위기와 마주한 우리는 삶을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삶의 가치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영화 <생존의 지혜>는 350.org의 빌 맥키넨, 생태주의 철학자 조애나 메이시아와 스테파니 카자, 생물학자 로지 페인 등 과학, 경제, 여성 분야의 사상가들과 활동가들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관람 신청 바랍니다.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 저녁 7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칠리아를

관람료: 무료

주관/주최: 푸른아시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JPC

국제기후총교신망(ICN) 네트워크

문의: Tel. 010-5612-7504 e-mail: secretariat@ice-network.org

(*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해주세요!)

참가신청

(클릭!)



기후붕괴

Disruption: Climate Change

영화와 함께 떠나는 기후여행
기후변화 씨네톡 (Cine talk)

DISRUPTION: CLIMATE CHANGE

(기후붕괴, 런닝타임: 52분, 감독: Jared P. Scott)

기후붕괴에 맞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의 이야기. "나의 조국이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경험한 것은 광기였습니다." - Yeh Sano "기후변화는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고, 마을과 일자리,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 일시: 2018년 4월 19일(목) 오후 7:00-9:00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칠리아를
- 주관: 푸른아시아
- 주최: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JPC, 국제기후총교신망(ICN)네트워크
- 관람료: 무료
- 신청 문의: 02-711-6675, e-mail: mjp21@gmail.com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바랍니다)

신청하기

2018년 기후변화 씨네톡 일정	
5/17(목)	The Age of Consequences (미리, 1시간 15분)
6/21(목)	The Age of Stupid (영국, 1시간 28분)
7/19(목)	Nuovo(2030) (에티오피아, 1시간 21분)
8/23(목)	Sizzle: A Global Warming Comedy (미국, 1시간 21분)
9/20(목)	Light Bulb Conspiracy (오스트리아, 52분)
10/18(목)	If You Love Your Children (2편) (미국, 영국, 1시간)
11/22(목)	In a Transition 2.0 (영국, 1시간)
12/20(목)	Time to Choose (미국, 1시간 37분)

* 상영일은 특별 3주목요일입니다.
** 상영작들은 상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IZZLE

a global warming comedy

7월의 기후변화 씨네톡 (CINE TALK)

A GLOBAL WARMING COMEDY SIZZLE

(감독: 랜디 올슨)

생물학자였던 랜디 올슨은 기후변화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영화감독이 된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스태프를 뽑지만,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카메라맨은 과학자들의 인허가 도중 계속 끼어들고,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키려는 시도는 무시당하기 일쑤다. 감독은 스태프들의 좌충우돌 속에서 중요한 뭔가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 출연: RANDY OLSON, MIKEY DAY, BRADY CLARK
- 감독: 랜디 올슨
- 러닝타임: 14분 24초

- 일시: 2018년 7월 19일(목) 저녁 7시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제칠리아를
- 관람료: 무료
- 문의: TEL. 010-5612-7504, E-MAIL: MJUN21@GMAIL.COM
- (*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해주세요!)

신청하기

주관/주최: 푸른아시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JPC, 국제기후총교신망(ICN)네트워크

© 세계 가톨릭 기후운동 캠페인에 서약해 주세요.

<http://livelaudatosi.org/>



Laudato si

**함께 보면
좋은
추천 동영상**

하나뿐인 지구



[https://www.youtube.com/
watch?v=xwLdF-P4xxM&t=77s](https://www.youtube.com/watch?v=xwLdF-P4xxM&t=77s)
30:58

기후 변화가 재앙 되나?



[https://www.youtube.com/
watch?v=blyacSRHhtA](https://www.youtube.com/watch?v=blyacSRHhtA)
6:38

이런다고 바뀔까요? 1



[https://www.youtube.com/
watch?v=CWfOUZuajWY](https://www.youtube.com/watch?v=CWfOUZuajWY)
17:18

이런다고 바뀔까요? 2



[https://www.youtube.com/
watch?v=-aEtQ4_i_zI](https://www.youtube.com/watch?v=-aEtQ4_i_zI)
15:01

이런다고 바뀔까요? 3



[https://www.youtube.com/
watch?v=tzOIQ_sSffI](https://www.youtube.com/watch?v=tzOIQ_sSffI)
15:08

쉽게 설명하는 지구 온난화



[https://www.youtube.com/
watch?v=AxGw7On1GtU](https://www.youtube.com/watch?v=AxGw7On1GtU)
16:04

**인류의 한계 온도
1.5도씨**



[https://www.youtube.com/
watch?v=37jiSktvo5s](https://www.youtube.com/watch?v=37jiSktvo5s)
12:18

기후변화 Q&A



[https://www.youtube.com/
watch?v=36bEpn5XB08](https://www.youtube.com/watch?v=36bEpn5XB08)
38:08

**코 앞에 닥친 기후위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https://www.youtube.com/
watch?v=oiVJ4VleOWM](https://www.youtube.com/watch?v=oiVJ4VleOWM)
7:51

54일의 장마의 경고



[https://www.youtube.com/
watch?v=96qc_kOhp7Q](https://www.youtube.com/watch?v=96qc_kOhp7Q)
53:40

**인간은 위태로운 젠가 게임 중!?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https://www.youtube.com/
watch?v=Yrq93M8Ku1A](https://www.youtube.com/watch?v=Yrq93M8Ku1A)
10:33

<p>과학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현실부정하는 10년 후의 팩트</p>  <p>https://www.youtube.com/watch?v=H-SJ3eKdhSA 8:45</p>	<p>EBS 지식채널e 시그널</p>  <p>https://youtu.be/mKyOSYjV9vU 5:23</p>	<p>EBS 지식채널e 환경오염, 동물살처분</p>  <p>https://youtu.be/KztOK-gwRMA 5:16</p>
<p>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진단과 경고</p>  <p>https://youtu.be/hW3jQRjqCT0 3:15</p>	<p>기후 위기 현실화 되나?</p>  <p>https://youtu.be/rn8Vn-J9CS8 2:30</p>	<p>이상한 날씨가 일상이 됐다. 기후 위기의 경고</p>  <p>https://youtu.be/6gJEKXPjW8 6:25</p>
<p>기후 위기의 시대를 물고 답하다</p>  <p>https://youtu.be/R95CT6RYBIY 51:02</p>	<p>코 앞에 닥친 '기후위기'와 '기후악당' 오명 쓴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p>  <p>https://youtu.be/hGrIVpEsZ9I 5:56</p>	<p>지구의 마지막 경고, 기후위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p>  <p>https://youtu.be/v1h63quFdAo 7:43</p>
<p>위태로운 지구를 회복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 에너지 전환</p>  <p>https://www.youtube.com/watch?v=eVdQ4H4DLvk 15:50</p>	<p>프로젝트 1.5C 석탄투자의 늪</p>  <p>https://www.youtube.com/watch?v=TB2SdnotIY8 21:33</p>	<p>"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_조천호</p>  <p>https://www.youtube.com/watch?v=LCY2QbmEARl 43:01</p>

관련 사이트 / 단체 소개

찬미밭오소서 공식 홈페이지: 찬미밭오소서 행동 소개

<https://www.laudatosi.org/laudato-si/>

찬미밭오소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새소식이 많습니다.
다만, 영어로 서비스되는 사이트입니다



가톨릭 기후행동: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https://gccmkorea.kr/1388>

실천하고 싶은 분들은 들려 주세요.
다양한 실천 방법과 연대방법이
소개됩니다



예수회 인권연대 웹진: 환경편

https://advocacyjesuit.kr/bbs/board.php?theme=wz&bo_table=webzine&sca=%ED%99%98%EA%B2%BD



코로나 학기를 함께 보낸 학생들에게

조현철SJ

코로나 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일주일도 못 본 우리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난 학기 저는 여러분과 <인간학>이란 교과목으로



서울교구 환경농촌사목: 즐거운 지구 살리기

<https://www.ecocatholic.org/html/eco4/paper.asp?cpage=7&tag=&id=earth&cnum=&idx=&wt=&cstype=a.title&ck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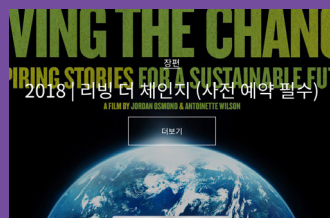
위클리어스(주간 환경이슈 소개)

<https://www.weeklyearth.com/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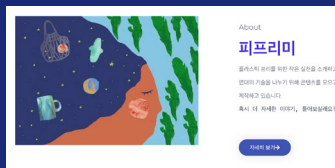
지구봄 프로젝트 (환경관련 영화 소개, 생활 속 실천 공유)

<https://jigubom.tistory.com>



피프프리미(플라스틱 free 플랫폼)

<https://pfree.me>



 <p>작은 것이 아름답다 1996~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함께합니다</p>	<p>작은 것이 아름답다 https://jaga.or.kr</p>	
	<p>녹색평론 https://greenreview.co.kr</p>	<p>녹색평론</p>
	<p>한국 그린피스 https://www.greenpeace.org/korea/</p>	
	<p>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p>	
	<p>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p>	
	<p>환경부 www.me.go.kr</p>	
	<p>에너지정의행동 https://energyjustice.kr</p>	
	<p>기후변화행동연구소 www.climateaction.re.kr</p>	
<p>© 에너지 절약시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축량을 선정하여 탄소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https://cpoint.or.kr/user/index.do</p>		
	<p>©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환경기후, 환경 네트워크에 함께 참여합니다. http://www.kcen.kr/USR_main2016.jsp??=life/li fe03</p>	

추천 도서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조금은 전문적인 책들(▲)과 일반적인 내용(◇, 그림책 포함)을 담은 책을 모았습니다. 굵은체로 표시된 책은 더 추천되는 도서입니다.

- ▲가이아/제임스 러브록/ 범양사
- ▲간디의 물레/김종철/ 녹색평론사
- ▲개발이나, 보전이나/노먼 마이어서/ 따님
-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 할 것인가/더글러스 러미스/녹색평론사
- ▲경제학은 왜 자연의 무한함을 전제로 했는가/나카무라 오사무/ 한울아카데미
- ▲공동체를 찾아서/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 ▲귀농, 아름다운 삶을 찾아서/전국귀농운동본부/ 두레
- ▲그곳에 가면 새가 있다/김해창/ 동양문고
- ▲기후변화의 심리학/조지마셜 지음
- ▲꿈꾸는 지렁이들/꿈지모/ 환경과 생명
- ▲꿈의 도시 꾸리찌바/박용남/이후
- ▲나락 한 알속의 우주/장일순/ 녹색평론사

-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디 브라운/ 나무 심는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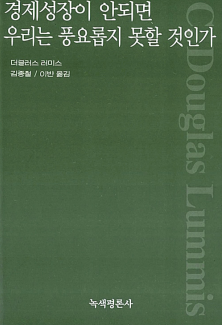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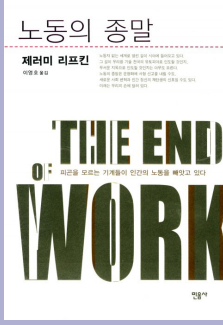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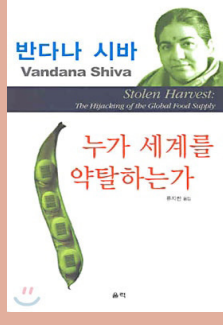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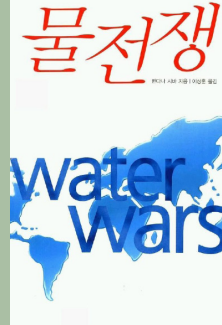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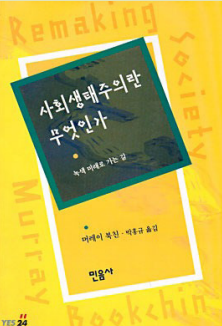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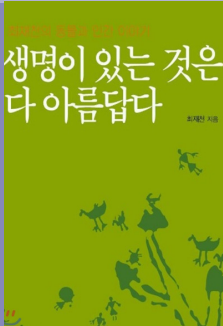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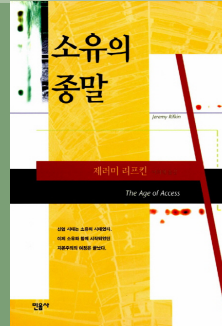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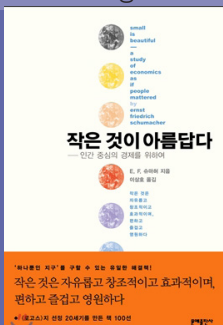


- ▲나무를 심은 사람/장 지오노/ 두레(영상도 있음)
-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포리스트 카터/ 아람드리미디어
- ▲내일을 거세하는 생명공학/박병상/ 책세상
- ▲노동의 종말/제레미 리프킨/ 민음사
- ▲녹색 희망/알랭 리피에츠/ 이후
- ▲녹색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정수복/ 문학과지성사
- ▲녹색세계사/클라이브 폰팅/ 그물코
- ▲녹색시민 구보씨의 하루/존 라이언 외/ 그물코
- ▲녹색정치사상/앤드루 돕슨/ 민음사
- ▲녹색평론선집/김종철/ 녹색평론사(지난호들을 묶어서도 구입할 수 있음)
-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반다나 시바/ 울력
- ▲도도의 노래 1,2/데이비드 콰멘/ 푸른숲
- ▲도둑맞은 미래/테오 콜본 외/ 사이언스 북스
-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천규석/ 실천문학사
- ▲동양사상과 환경문제/한국불교환경교육원/ 모색
- ▲등지 밖으로 나온 동물건축가/박태순/ 잉걸
-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최창조/ 민음사
- ▲똥이 자원이다/전경수/ 통나무
- ▲래디컬 에콜로지/캐롤린 머천트/ 이후
- ▲모래군()의 열두 달/알도 레오폴드/ 따님
- ▲무소유/법정/ 범우사
- ▲물 전쟁/반다나 시바/ 생각의 나무

▲블루골드/모드 발로 토니 클라크/ 개마고원
 ▲사라져가는 한국의 야생동물을 찾아서/김연수/ 당대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머레이 북친/ 민음사
 ▲산양 똥을 먹는 사람/박그림/ 명상
 ▲삶과 온 생명/장희익/ 솔
 ▲생명권 정치학/제레미 리프킨/ 대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최재천/ 효형
 ▲생존의 비용/아룬다티 로이/ 문학과지성사
 ▲생태기행 1,2,3/김재일/ 당대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문순홍/ 나라사랑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영성/장희익 외/ 내일을 여는 책
 ▲생태주의자 예수/프란츠 알트/ 나무 심는 사람
 ▲생태학의 담론/문순홍/ 솔
 ▲석유 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이필렬/ 녹색평론사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조제 보베 외/ 울력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힐러리 프렌치/ 도요새
 ▲소리없는 강/패트릭 매컬리/ 지식공작소
 ▲소유의 종말/제레미 리프킨/ 민음사
 ▲숲과 녹색문화/전영우/ 수문출판사
 ▲숲과 시민사회/전영우/ 수문출판사
 ▲스콧 니어링 자서전/스콧 니어링/ 실천문학사
 ▲시민과학자로 살다/다카기 진자부로/ 녹색평론사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한경구 외/ 솔
 ▲식물의 정신세계/피터 톰킨스 외/ 정신세계사
 ▲아담을 기다리며/마사 베크/ 녹색평론사
 ▲아이들은 왜 자연에서 자라야 하는가/게리 폴 나브한 외/ 그물코
 ▲야생초 편지/황대권/ 도솔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이필렬/ 창작과비평사
 ▲에코페미니즘/마리아 미스, 반다나 시바/ 창작과비평사
 ▲엔트로피/제레미 리프킨/ 범우사
 ▲언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환경기자클럽/ 궁리
 ▲오래된 미래/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녹색평론사
 ▲오카방고 흔들리는 생명/닐스 엘드리지/ 세종서적
 ▲우리 동물 이야기/박병상/ 북겔럽
 ▲우리 숲 산책/차윤정/ 웅진닷컴
 ▲우리를 둘러싼 바다/레이첼 카슨/ 양철북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다카기 진자부로/ 녹색평론사
 ▲월든/헨리 데이빗 소로/ 이레
 ▲유인원과 산책/SY 몽고메리/ 다빈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1,2/존 로빈스/ 아름다리미디어
 ▲육식의 종말/제레미 리프킨/ 시공사
 ▲20세기 딛고 뛰어넘기/환경운동연합 21세기위원회/ 나남
 ▲21세기 희망은 농(農)에 있다/정경식·안철환/ 두레

- ▲자발적 가난/E F 슈마허 외/ 그물코
-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반다나 시바/ 당대
- ▲자전거-21세기 녹색교통수단/조진상 /월산
- ▲작은 것이 아름답다/E F 슈마허/ 문예출판사
- ▲잘먹고 잘사는 법/박정훈/ 김영사
- ▲잡초는 없다/윤구병 지음/ 보리
- ▲조화로운 삶/헬렌 니어링, 스콧 니어링/ 보리
-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존 라이언/ 그물코
- ▲지구환경보고서 2002/월드워치연구소/ 도요새
-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다음을 지키는 엄마 모임/ 시공사
- ▲참여로 여는 생태공동체/박병상/ 아르케
-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에코리브르
- ▲패스트푸드의 제국/에릭 솔로서/ 에코리브르
-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스코트 새비지/ 나무심는사람
- ▲한국의 생태사상/박희병/ 돌베개
-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이반 일리히/ 형성사
- ▲허울뿐인 세계화/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외/ 따님
- ▲현대환경론/데이비스 페퍼/ 한길사
-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전우익/ 현암사
- ▲화엄의 길, 생명의 길/도법/ 선우도량
-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이시 히로유키 외/ 경당
- ▲환경정의의 위하여/토다 키요시/ 창작과비평사
- ◇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한재각, 도서출판한티재
- ◇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기후위기 비상행동 핸드북), 박재용, 뿌리와이파리
- ◇ 1.5도의 미래, 윤신영, 나무야
- ◇ 102톤의 물음, 에드워드 흄즈, 낮은산
- ◇ 2050 거주불능 지구, 데이비드 윌러스 웰스, 추수밭
- ◇ 겨울잠을 자는 동물의 세계, 에코리브르
- ◇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상품이 된 공기, 동아시아 출판사
- ◇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 그레타 툰베리 외, 책담
- ◇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김종철, 녹색평론사
- ◇ 나무의 언어(나무가 들려주는 세상이야기), 귀도 미나 디 소스피로, 설렘
- ◇ 나의 비거니즘 만화: 어느 비건의 채식 & 동물권 이야기, (주)도서출판 푸른숲
- ◇ 남극이 파괴되고 있다, 후지와라 고이치, 도토리나무
- ◇ 녹색상담소,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것이아름답다
- ◇ 늑대가 온다 - 늑대를 사랑한 남자의 야생일기, (주)양철북출판사
- ◇ 대단한 돼지 에스터, 책공장더불어
- ◇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 제프 패럴, 시대의창
- ◇ 도전!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 <가시박 잎의 구멍은 누가 만든 걸까?>, 국립생태원
- ◇ 동물주의 선언, 책공장더불어
- ◇ 두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알에이치코리아
- ◇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는 유쾌한 생활습관 77, 데이비드 드 로스차일드, 추수밭
- ◇ 로컬의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남해의봄날

- ◇ 만화로 보는 기후변화의 모든 것, 플라프스콰르조니, 다른
- ◇ 묻다, 책공장더불어
- ◇ 물건 이야기, 애니 레너드, 김영사
- ◇ 바나나 제국의 몰락, 반니
- ◇ 바닷마을 인문학, 도서출판 따비
- ◇ 빅 치킨 : 항생제는 농업과 식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에코리브르
- ◇ 사라진 내일, 헤더 로저스, 삼인
- ◇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 세종서적
- ◇ 산처럼 생각하라, 아르네 네스 외, 소동
- ◇ 생명에서 생명으로 베른트 하인리히, 궁리
- ◇ 생태부역(냉장고와 헤어진 어느 부부의 자급자족 라이프), 김미수, 콤마
- ◇ 소의 비밀스러운 삶, (주)양철북출판사
- ◇ 쇠나우 마을 발전소, 상추쌈출판사
- ◇ 습지 그림일기, 산지니
- ◇ 식물의 책, 이소영, 책읽는 수요일
- ◇ 식사 혁명, MID 엠아이디
- ◇ 쓰레기책, 이동학, 오도스
- ◇ 아무튼, 비던, 김한민, 위고
- ◇ 열두달환경달력(한달에한번지구를 생각하는 환경 기념일), 임정은, 길벗스쿨
- ◇ 오늘 조금 더 비건, 초식마녀, 채륜서
- ◇ 오늘의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추령, 양철북
- ◇ 온 삶을 먹다, 웬델 베리, 낮은산
- ◇ 왜 크고 사나운 동물은 희귀한가: 생태학의 관점에서, 에코리브르
- ◇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 고금숙, 슬로비
- ◇ 우주날씨 이야기, 플루토
- ◇ 위장환경주의: '그린'으로 포장한 기업의 실체, 에코리브르
- ◇ 위장환경주의, 카트리 하르트만, 에코리브르
- ◇ 은밀하고 위대한 식물의 감각법, 도서출판 다른
- ◇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인가, 반다나 시바, 책세상
-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자본주의 대 기후), 나옴 클라인, 열린책들
- ◇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강신호, 북센스
- ◇ 이렇게 웃고 살아도 되나, 조혜원, 산지니
- ◇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데이비드 콰먼, 꿈꿀자유
- ◇ 자연의 비밀 네트워크, 도서출판 더숲
- ◇ 자연이 보내는 손익계산서, 토니 주니퍼, 갈라파고스
- ◇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라즈 파텔 외, 북돋움
- ◇ 지구에 대한 의무, 스티븐 부라니 외, 스리체어스
- ◇ 지구인의 도시 사용법, 박경화, 휴
- ◇ 탄소 사회의 종말, 조효제, 21세기북스
- ◇ 탄소 자본주의(기후변화 시대 마음의 생태학), 신승철, 도서출판한살림
- ◇ 파란하늘 빨간지구 "기후변화와 인류세, 지구시스템에 관한 통합적 논의", 동아시아 출판사
- ◇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라이팅하우스
- ◇ 플라스틱 섬, 상출판사(아이필드)

- ◇ 플랜 드로다운(기후변화를 되돌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계획), 폴 호켄, 글항아리사이언스
- ◇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가게에 갈까?, 헤이복스
- ◇ 향모를 땅으며, 로빈 월 키머러, 에이도스
- ◇ 홀로 서지 않기로 했다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세계 일주, 목수책방
- ◇ 화성에서 만난 오래된 씨앗과 지혜로운 농부들, 시금치출판사

 <p>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더글러스 러미스 녹색평론사</p>	 <p>노동의 종말 제러미 리프킨 더글러스 러미스 녹색평론사</p>	 <p>반다나 시바 Vandana Shiva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반다나 시바 울력</p>	 <p>물전쟁 반다나 시바 생각의 나무</p>
 <p>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머레이 북친 민음사</p>	 <p>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최재천 효형</p>	 <p>생태주의자 예수 프란츠 알트 나무 심는 사람</p>	 <p>소유의 종말 제러미 리프킨 민음사</p>
 <p>윌든 헨리 데이빗 소로 이레</p>	 <p>작은 것이 아름답다 EF 슈마허 문예출판사</p>	 <p>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에코리브르</p>	 <p>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반다나 시바 울력</p>



2020년 대림주간 생태달력입니다.

향후 찬미받으소서 생태환경 활동을 하실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생태 1

2020년 대림 시기

주일	월	화	수
29 찬미받으소서 71항 대림시기 주제인 '기다림'은 자연을 통해 다가움을 묵상하기 	30 찬미받으소서 1항 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기억하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품과 비교하기 	1 찬미받으소서 20항 자연 속에서 오래 걷기를 즐기고, 일상의 활동들을 위해 더 자주 걷는 계획을 세우기 	2 찬미받으소서 3항 “세상에 대 책임 있는 관리 하고 
6 찬미받으소서 58항 지구를 위해 일하는 지역의 비영리단체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활동에 감사하기 	7 찬미받으소서 19항 인간 사회와 환경, 가난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그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와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8 찬미받으소서 68항 자연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자연의 신비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9 찬미받으소서 10항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재배되는 토종 이야기에 귀 기울여 정보를 얻기 
13 찬미받으소서 87항 형제인 태양과 누이인 달과 모든 피조물을 주신 창조주를 찬미하기 	14 찬미받으소서 85항 각양각색의 나뭇잎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기 	15 찬미받으소서 179항 지역의 환경 캠페인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기 	16 찬미받으소서 16항 기술이 어떻게 연결되 내가 사용 물건들은 
20 찬미받으소서 98항 아기예수님이 오실 구유 꾸미기 구유와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묵상하기 	21 찬미받으소서 103항 인간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준 발명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22 찬미받으소서 211항 가정에서 자연 친화적인 습관들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는지 가족들과 대화하기 	23 찬미받으소서 17항 다가오는 새해 '생태 계획' 

달 력

11월 29일 - 12월 24일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바탕으로 한 이 대림시기 달력은 우리가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도록 초대합니다. 회칙의 관련된 항을 매일 읽고 성찰, 묵상, 행동으로 이어지는 은총의 대림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	목	금	토
찬미받으소서 116항 한 지배는 "임을 성찰하기 	3 찬미받으소서 151항 친구들과 인근의 공동 구역들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법에 대해 논의하기 	4 찬미받으소서 34항 노인들과 지역의 약초와 약용식물들에 대해 질문하고 대화하기 	5 찬미받으소서 42항 내가 사는 지역의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의 목록을 만들기 
찬미받으소서 227항 음식을 즐기고, 작물들에 대한 가치 높이고 공유하기 	10 찬미받으소서 143항 문화적 관습에서 자연을 이용한 흔적을 찾아보기. 그리고 노인들과 그 의미에 대해 대화하기 	11 찬미받으소서 8항 나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훼손을 조사하고,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지 검토하기 	12 찬미받으소서 14항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종교간 대화를 통해 성찰하기 
찬미받으소서 102항 지구와 는지 성찰하고, 하지 않는 나누어 주기 	17 찬미받으소서 58항 지역의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하여 플라스틱과 쓰레기들을 줄이고 재활용하기 	18 찬미받으소서 149항 관대한 마음으로 내가 고용한 직원들이 성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19 찬미받으소서 177항 우리 나라가 지구를 보호하는 정책과 실천 과제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찬미받으소서 222항 해해를 위해 '을 세우기 	24 찬미받으소서 97항 자신들만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새들의 합창을 즐기기 	25 찬미받으소서 238항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에 오신 것을 기뻐하기! 	



[부록]

사회사목국 코로나19위원회

[FOJ(재난긴급모금), 대건카리타스, 이주민사목, 민족화해 중심으로]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



자료집을 내면서

이 자료집은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여러 관련된 사제들이 모여 회의를 거쳐 정리한 자료입니다.

FOJ(재난긴급모금)의 활성화 방안, 대건 카리타스와 이주민사목 약간의 변화를 담아 만든 것입니다. 취약계층도 비대면 속에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뜻밖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클릭해서 물건을 주문하지만 그만큼 누군가는 두 배로 발로 뛰어야 합니다. 기존의 취약계층(소상공인, 독거노인, 이주민 등)도 코로나 19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이주민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스크가 아니라 먹을 양식입니다.' 감염보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20년 초 교구에서 FOJ(재난긴급모금)을 만들어 긴급히 필요한 곳에 지원해 왔습니다.(다른 교구 지원, 저희 교구 내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이주민가정 지원 등) 물론 많은 신자분들과 사제들이 십시일반해서 이 모금에 동참해 재정을 마련해주셨습니다. 2021년에도 대건 카리타스와 협력해 긴급한 곳이 있으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FOJ(재난긴급모금)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생활지원뿐만 아니라, 수해나 태풍 등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FOJ(재난긴급모금)의 재정이 현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홍보를 통한 모금의 다양화를 만들어 누구든지 작은 돈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사회사목국장 조병길 이시도로 신부





55 자료집을 내면서

59 사회사목국 과제

60 사회사목국 코로나19위원회

61 I. 재난긴급(FOI)지원팀

65 II. 대건카리타스

71 III. 이주민/난민

77 IV. 민족화해



사회사목국 과제

재난긴급모금(FOJ) - 재정확보	단기	중기	장기
· 재원확보 : 모금 홍보 확장 방안	√	√	
· 본당/지역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		
대건카리타스 - 재정확보			
· 산하 사회복지시설 지원		√	√
· 교구와의 연대체계 구축 방안 : 긴급구호 / 생계비지원	√		
· 법인 사업 방향 전환 :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		√	√
생태환경 - 의식의 전환			
· 생태영성학교 및 생태영성 포럼 운영		√	√
·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7개년 여정’ 실행방안		√	√
· 우리농 생산품 판매 촉진		√	√
· 이정부시 기후위기 비상선언(행동) 조직 및 지원		√	√
이주민 / 난민 - 재정확보			
· 노동/의료/채류/생활/교육 측면의 대응(생활 측면 강화)	√		
· ‘1본당 1난민가정 돌봄’ 사업 강화	√	√	
· 동두천센터/베타니아/전진상우리집/국제가톨릭센터 연대 강화	√	√	
· 외국인 법률지원 단체와 협력강화	√		
민족화해 - 재정확보			
·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 식재료 전달	√		
·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유지 방안	√		
· 대북지원사업 : 방역 관련 물품 확보 및 지원방안		√	√
· 정부 및 대북지원 비정부 기구와의 소통	√	√	√

코로나19 위원회(사회사목국)

I. 팀 구성

재난긴급지원팀 / 기후위기대응팀

II. 팀 구성원

재난긴급지원팀 : 사회사목국장 조병길신부, 대건카리타스회장 도현우신부

기후위기대응팀 : 사회사목국장 조병길신부, 대건카리타스회장 도현우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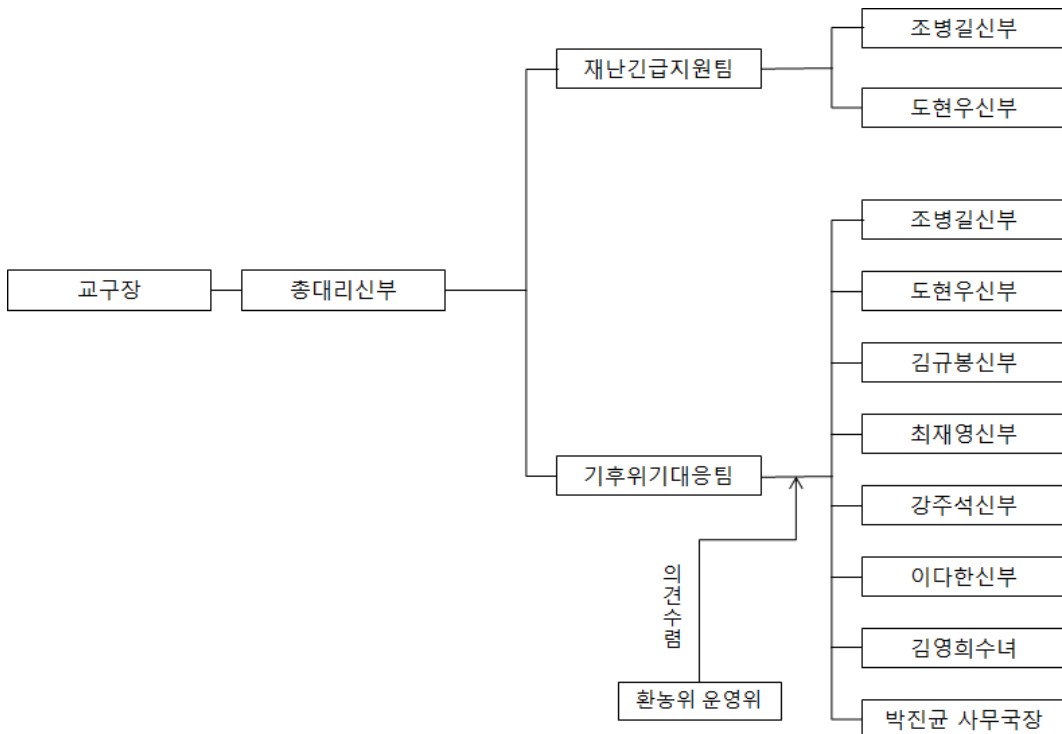
환경농촌사목위원회&지역복음화 김규봉신부,

이주사목위원회 최재영신부, 민족화해위원회 강주석신부

콘벤뚜알프란치스코 수도회 이다한신부,

성심수도회 김영희수녀, 정의평화위원회 박진균사무국장

III. 조직도



I. 재난긴급(FOI)지원팀

1. 취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19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게 재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이 작게나마 해소되는 듯 보였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폭설, 홍수나 가뭄, 산불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기후환경으로 인한 제2, 제3의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은 더 많아졌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의 폭은 그 만큼 더 늘어날 것입니다. 취약계층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동참과 희생, 그리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교구는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우리 모두 힘 내요(Fighting), 우리 모두 이겨내요(Overcome), 우리 모두 동참해요(Joining)이란 슬로건으로 재난긴급모금(FOJ)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계획과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2.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1) 재원 확보를 위한 전용계좌 개설 및 홍보

① 교구 차원의 모금

- 전용계좌 개설 : 우리은행 1005-802-013850 (재)천주교의정부교구
- 포스터 제작 : 2020년 3월 웹 포스터 제작 및 배포

② 모금 독려 및 지원 공문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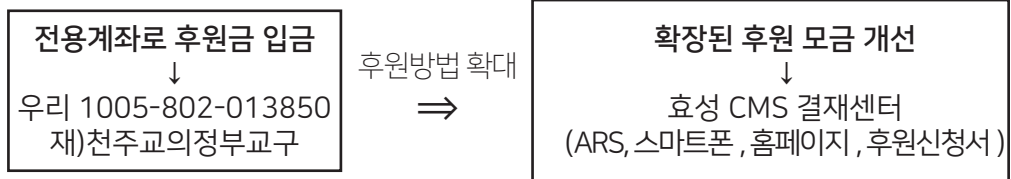
- 1차 지원 : 공문(사회 20-129 / 4.14 일자)
- 2차 지원 : 공문(사회 20-171 / 5.19 일자)
- 3차 지원 : 공문(사회 21-003 / 1.07 일자)

③ 투명한 모금 및 지원에 대한 공지

- 의정부교구 홈페이지 :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 주보 : 모금 활동에 참여한 모든 신자가 모금이나 지원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④ 확장된 모금방법 개선

- 후원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금방법의 개선 노력
- CMS 결제센터를 통한 스마트폰 후원, 홈페이지 후원, 후원신청서를 통한 서면신청, ARS(1877-1767) 후원



3. 지원 상세내역

1) 1차 지원 : 코로나 19 확산으로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 지원

[1차 지원 상세내역]

지원처	금액	비고
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	50,000,000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30,000,000	
취약계층생활비 긴급지원	12,000,000	대건카리타스 연계 12가정
선별진료소 위문품 지원	4,500,000	
식자재 취약계층 지원	1,540,000	우리농 유통기한 임박한 식자재 구입하여 지원
체온계 지원	1,050,000	대건카리타스 산하기관
마스크, 식재료, 분유, 기저귀 등	현물지원	

2) 2차 지원 : 신자, 비신자 구분 없이 본당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생계비를
본당을 통하여 각 가정당 500,000원*169가정(총 84,500,000원) 지원

[2차 지원 상세내역]

지구	본당	신청수
1	수동(5), 진건(7), 창현(5), 천마(11), 평내(1)	29
2	별내(4), 오남(1), 토평동(2), 퇴계원(18), 구리EXODUS(7)	32
3	송산(1), 송추(8), 용현동(3), 청학(5), 호원동(5), 의정부EXODUS(6)	28
4	덕계(6), 덕정(5), 송내동(2), 전곡(5)	18
5	관산동(6), 능곡(3), 신원동(8), 원당(1), 행신2동(3), 화전마을(7)	28
6	마두동(1), 정발산(1), 중산(6)	8
7	가좌동(3), 대화동(3), 주엽동(2)	8
8	금촌2동(1), 문산(1), 봉일천(3), 야당맑은연못(6), 파주EXODUS(7)	18
합계	총 34개 본당 및 3개 이주사목위원회 169가정*500,000원=84,500,000원 지원	169

[3차 지원]

- 접수마감 : 2021년 1월 25일(월)
- 본당으로 일괄지원 : 2021년 1월 28일(목)
- / 본당에서 선별된 대상자를 교구에서 심의 후 지원할 예정
- / 설(구정) 전에 각 대상에게 본당에서 지원

4.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향후 계획

1) 확장된 모금 및 홍보의 계속적 노력

- 포스터 - 후원독려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포스터 제작 필요(웹 포스터도 필요)
- 동영상 - 신부님들의 1분 후원독려 영상, 혹은 그 외 필요한 영상
- 주보 - 후원 및 지원 상황에 대한 투명성 (전 신자가 볼 수 있는 방법)
- 홈페이지 - 후원 및 지원 상황에 대한 투명성 (항상 볼 수 있는)
- 기타 - 유튜브를 통한 미사 시 홍보영상 삽입 등

2)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조사 및 지원 방법 모색

[본당]

우리 본당 지역 내에 있는(신자, 비신자 구분 없음) 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자료),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며, 재난 상황이 왔을 때,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돌봄이 필요하다. 본당 재정으로 충당이 가능한 선에서 우선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되, 필요하다면 교구에 상황을 보고하고 도움을 받도록 한다.

예) 비신자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교구 내 이주사목위원회와 연계하여 파악 가능

[교구]

교구는 재난긴급상황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FOJ)하고, 본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재원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금 방법을 마련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심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본당 사정상 재정에 비해 취약계층이 많다면 일정 금액이 본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 대건카리타스

1. 사회복지환경의 변화

○ 선별적 복지 ○ 복지에 대한 국가 의무 ○ 복지환경의 변화	⇒	○ 보편적 복지 ○ 공공성 강화 ○ 다양한 위탁 주체들의 등장. 인권, 권리의식 up
--	---	---

- 종교사회복지가 우리나라 복지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 왔음. 그러나 사회복지가 국가의 책무라는 의식 증대
- 국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안에서 위탁사업 위주의 복지사업을 수행. Caritas 다운 사랑의 실천을 해 왔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른 정부 의존성 증대와 자율성 및 정체성 약화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복지활동 편중과 본당 사회복지활동(사랑의 실천) 미흡 ◎ 신자들의 사회복지활동 참여 및 실천 미흡 ◎ 본당 간 사회복지활동 양극화 ◎ 사랑의실천(caritas) =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활동으로 왜곡

■ caritas 와 welfare

caritas	welfare
사랑이 기반	정의를 기반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배품	일한 대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고 받는 선물	권리와 의무의 제도화
교회의 본질(사랑 실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

2. 산하복지시설 지원

- 기존 시설에 대한 카리타스의 역할 강화(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

세부 과제 단기		과제 분류		
		단기	중기	장기
사회복지 교육	○ 직원교육체계 마련 (목적) 산하시설 직원의 정체성과 연대성 강화와 함께 법인 이념을 반영한 사업, 활동 방안 수립. 역량 강화 수립 개선방향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	
	○ 신입직원 교육 (목적) : 산하시설 신입직원의 법인이해 제고 (내용) - 법인 이념과 운영 현황 안내 - 카리타스 영성교육과 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교육	○		
	○ 사회사목분과 연수 (목적) 본당 사회사목분과회원들의 역량 강화 (내용) - 본당에서의 사회사목활동 관련 실무 교육 - 교회 사회복지사업 방향 및 대건카리타스 사업 소개 ※ 사회사목국과 협력 관계필요		○	
법인 전출금	○ 법인 전출금 조정 (목적)자부담 전출금과 후원금 전출금의 비율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배정 (내용) - 법인 자부담 수입 축소로 인한 전출금 비율 조정 - 전출금의 합리적 지출 유도	○		
등록 시설 지원	○등록시설 지원 (목적) 교구내 등록시설(18곳)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내용) -등록시설 기능보강, 프로그램 등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 선정 지원 개선방향 -지원금액의 확대(현재 1천만원) 방향 모색	○		

3. 교구와의 연대체계 구축 방안 : 긴급구호/생계비 지원

세부과제		과제분류		
		단기	중기	장기
긴급구호	○긴급구호(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등) (목적) 저소득층 세대의 한시적인 서비스 지원과 자원연계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 (내용) -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세대 지원 - 시설 및 본당의 의뢰에 따른 조사 및 지원 개선방향 - 사회사목관련 제위원회와의 연대 강화 - 긴급지원관련 매뉴얼(가이드 라인) 제시 - 교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복지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		
난방비 지원 (생계비 지원)	○난방비 지원 (목적) 취약계층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 나기 지원 (내용) - 600명(가구당 300,000원 지원) 개선방향 -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지원	○		
요한 학자금	○ 요한학자금(취약계층 고등학생 지원) (목적) 교육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 (내용) - 배움의 기회 제공 및 지원 대상학생 자존감 보호 - 취약계층가정 경제 간접 지원 개선 방향 -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 실시(2021년) - 대상의 다변화 모색(이주민, 새터민, 대학생(원생)) - 학자금 종류의 다변화 : 학원비, 예체능비 -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위한 학자금 지원 - 단기 지원 뿐만 아니라 장기지원 방향도 고려		○	
제위원회와 연대	○교구 사회사목 제위원회와 연대 - 복지영역의 확대에 인하여 제위원회와 역할의 모호성 발생 - 독립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이긴 하나 교구내 조직 제안 - 사회사목제위원회와 사업계획 공유 및 역할 재정립 - 실무자 워크샵(연1회), 실무자연석회의(분기별)제안 - 사업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	

4. 법인 사업방향 전환 :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

- caritas는 교회의 본질적 활동
 - 말씀의 선포, 신비의 거행, 사랑의 봉사(caritas). 교회 사랑의 실천은 인간존엄성 즉, 하느님 모상에 있음. 따라서 교회 사랑실천은 인간존엄성이 위협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참된 존엄성을 찾아주기 위한 봉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 ◎ 교회내적(본당사회사목활동) :
 -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조직화 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이 요구됨(사회사목분과).
 - 사랑의 실천이 교회의 본질적 활동, 즉 믿음의 실천행위이며, 자원봉사,사회복지 활동이 아님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
 - 본당 사회사목분과를 중심으로 한 교회 본연의 사랑실천임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음.
- ◎교회 외적(복지시설운영, 위탁시설 등) :
 - 또한 교회의 복지시설들이 사랑 실천의소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문화, 조직화 될 필요가 있음(법인, 복지시설)
 - 사랑의실천이 국가 사회복지전달체계 안의 위수탁 관계에서 본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함.
 - 위 수탁 확장보다 기존 사업 재정비가 필요
 - 기존 시설에 대한 카리타스의 역할 강화(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
- 교외내적(사랑실천)과 교회외적(사회복지실천)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시점

세부과제		과제분류		
		중기	장기	장기
본당과 시설 의 네트워크	○ 관할 본당과의 연대 (목적) 관할 본당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본당 사랑실천과 시설 사회복지실천의 만남. 개선방향 - 시설에 관할 사제의 역할 부여 : 운영위원, 인사위원 등 - 시설의 사회복지전문지식, 복지상식등을 사회사목분과에게 교육 및 전달 예)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폭력교육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성폭력 교육 / 육아정보센터 : 부모교육, 상담 등 - 본당에서의 사랑실천이 전문적인 사회복지 지식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p>사회사목 분과 역할강화 (빈첸시오 포함)</p>	<p>○ 현재 사회사목분과에서는 요한학자금, 생계비지원, 청소년결 연후원금을 전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p> <p>개선방향</p> <p>-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사랑실천의 참여자(행위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p> <p>- 본당의 사회사목분과 및 빈첸시오회를 중심으로한 사랑실천 이 교회 본연의 사랑실천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p> <p>○ 본당과의 긴밀한 협조</p> <p>개선방향</p> <p>- 지역공동체 안에서 본당이 실천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지원</p> <p>예) 연천,적성 성당 수해지원</p>		○	
<p>취약계층 지원</p>	<p>○ 교회를 중심(본당,제위원회)으로 전개 되고 있음</p> <p>개선방향</p> <p>- 경기북부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유리한 복지법인</p> <p>- 경기북부를 관할하고 있는 복지법인으로서 대사회적인 측면 에서 지자체, 복지단체들과도 협력체계 구축필요</p> <p>-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제고</p> <p>○ 시대의 징표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방향을 탄력적으로 적용</p> <p>개선방향</p> <p>- 교구장의 사목 방침에 따른 지원</p> <p>- 긴급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p>		○	

8) 코로나 19 업무 대응

- 기본적으로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 지침 준수 및 협조

분 야	내 용	비 고
교 육	<p>○ 전국사회복지법인 교육분과 공통교육컨텐츠 개발 중</p> <p>- 교육메뉴얼 포함 비대면 교육컨텐츠</p> <p>○ 찾아가는 소규모 교육 실시</p> <p>- 법인정신 및 정체성관련 교육은 소규모로 시설 맞춤형으로 진행</p>	

회 의	○회의(시설장 회의) - 온라인 회의(zoom)체계구축 및 시범실시	
복지시설 운영	○ 각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 지침 준수 및 운영 -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	
취약계층 지원사업	○ 업무 추진절차 및 관련 자료 매뉴얼화 -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화 및 최소서식 제공	
법인행정업무	○ 대면업무 최소화 - 필요한 경우에만 대면업무 진행	

Ⅲ. 이주민/난민

1. 노동/의료/체류/생활/교육 측면의 대응(생활측면 강화)

구분	코로나19 이전의 통상업무	코로나19 이후의 통상업무	대응
노동	<p>이주사목위원회의 주요활동은 이주노동자들(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이들을 포함)에 대한 노동 상담임.</p> <p>가) 임금과 관련된 문제 : 노동시간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 퇴직금 수령의 어려움 동반(귀국티켓이 있어야 수령 가능) 등. 사업주와 협상하거나 노동청에 신고.</p> <p>나) 직장변경에 관한 건 :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사용자중심의 독소조항인 직장변경금지제도와 관련한 상담. 사업주와 협상하거나 노동청에 신고.</p>	<p>실직과 강제적인 무급휴직, 임금삭감 등으로 이주민들의 경제적 조건이 악화됨(직장변경은 더 어려워졌음. 사업주들은 자기손해를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고, 감독 당국은 여력이 없음).</p> <p>결과적으로 이주민들의 고민이 노동문제에서 거주와 숙식의 생활문제로 전이됨.</p>	<p>변경, 확장된 이주민들의 노동문제에 응답하면서, 동시에 생활문제로 전이된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p> <p>상황 파악과 자료 축적, 지원금 마련이 핵심과제임.</p> <p>교구와 외부단체의 지원과 더불어 각 센터의 지원역량을 높이려고 노력중임.</p> <p>변화된 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적응도 필요함.</p>

구분	코로나19 이전의 통상업무	코로나19 이후의 통상업무	대응
의료	<p>특히 미등록노동자들 (소위 불법체류)은 건강보험의 외곽에 있어 의료지원이 필요함.</p> <p>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의료비를 포함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문제에 동행.</p> <p>다문화 가정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에 편입되어 있으나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 많음)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언어의 한계 등으로 도움이 필요함.</p> <p>노동허가 비자 (e-9 비자는 국내인과 같은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함)를 소지한 사람들은 통역에 대한 지원만을 원칙으로 함.</p> <p>자체적으로 무료 진료소 운영.</p>	<p>코로나 사태로 보건소나 공공병원의 지원이 약해짐.</p> <p>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무료 진료소도 멈춘 상태.</p> <p>의료혜택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적어짐.</p> <p>이주민들의 경제적 상황 악화로 건강보험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함.</p>	<p>무료 진료소를 최대한 대체하는 방식으로 약국 운영 중임 (혈압, 당뇨 등 필수 약품 지원).</p> <p>외부 협력병원을 최대한 찾아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p> <p>신생아들이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서 유아들에 대한 의료적, 생활적 돌봄이 요구됨.</p> <p>건강보험 밖에 있는 환자가 증가할 수 있어 재정 확대 방안 마련해야 함.</p>

구분	코로나19 이전의 통상업무	코로나19 이후의 통상업무	대응
체류	<p>이주민들과 그 가족들의 입국과 출국, 퇴직처리, 재입국, 체류연장, 변경 등에 관련된 행정절차 동행.</p> <p>관련 기관과 연계.</p>	<p>이주민들이 출국을 원하지만 출입국 정책으로 항공편이 극감해 귀국에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해졌음.</p> <p>한국정부에서 체류를 연장해 주었지만 장기화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p> <p>출국 과정의 어려움으로 퇴직금 수령이 어려워졌음 (귀국 항공 티켓이 없으면 퇴직금 중 일부를 수령할 수 없음) 이에 따르는 결과로 거주와 숙식의 생활문제 발생.</p>	<p>출국이 장기화되고(항공편 부족) 복잡해지고(출국 시 필요한 코로나 관련 증명서) 고 비용화(항공편의 결항이 잦아서 비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 되어 이주노동자들의 지원요청에 응답하고 있음.</p> <p>출국이 결정되기까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쉼터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p> <p>각 나라 대사관과의 협력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p> <p>현재는 비자 연장에 대한 문의가 많으나 장기화 될 경우 미등록으로 남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돌아갈 수도 없고 취업비자는 만료가 되기 때문에)</p> <p>체류 허가 노동자보다 미등록 노동자에게 더욱 필요한 기관이 가톨릭교회의 이주민 상담소임.</p>

구분	코로나19 이전의 통상업무	코로나19 이후의 통상업무	대응
생활	입국 후 정착과정에 관한 도움. 직장 내 갈등조정. 가정 내 갈등조정. 아이들 학교 문제,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행정복지센터나 외부 지원 단체와 연계. 지역 내에서 이주민들 사이에 작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함.	경제적 상황 악화의 결과로서 가정 내 갈등 증가. 신생아 출산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신생아 돌봄에 관련된 다양한 새로운 요구 증가. 쉼터에 대한 수요증가. 생계에 대한 지원요청 증가 등 직접적 경제지원 필요성 증가.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생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준비해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도 필요함. 다른 업무에 비해 가장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분야임.
모임과 교육	공동체별 미사, 한글 교실, 국가별 행사, 엑소더스 중심의 지역축제, 교구 차원의 대축제 등	이주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이중적 두려움(스스로 갖는 두려움과 사회적 위치 때문에 갖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미사 참석에 두려움을 가짐. 전례 축소화. 한국어 교실 등 각종 교육은 불가. 모든 행사 취소. 한글 교실 운영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나 기존 형태의 수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소모임 형태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함. 방문보다 통화가 늘어 이에 적합한 형태로 업무변화 준비하고 있음. 기타 행사는 불가하나 한글 교실은 1대1의 교육이나 온라인 수업을 기획하고 있는 중임.

2. '1본당 1난민가정돌봄' 사업 강화

(1) 난민활동가 교육생 모집

☐ 교구공문 발송 ☐ 이주사목 위원장신부들이 전화로 해당 지역 본당주임사제에게 협조요청 ☐ 교육 ☐ 난민활동가 활동개시(난민가정에 전화, 문자) ☐ 난민활동가 지역별 모임(화상회의)

(2) 난민활동가 교육

☐ 기수별 교육기간

- 1기 : 2018년 3월 17일(토)~5월 26일(토), 10시~13시
- 2기 : 2019년 3월 9일(토)~5월 25일(토), 10시~13시
- 3기 : 2020년 8월 22일(토)~9월 26일(토), 10시~13시

☐ 교육 일정

- 1회 : 가톨릭교회와 이주민
- 2회 :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행사
- 3회 : 국내 난민 인권의 현황과 실태
- 4회 : 이주민 인권 감수성 교육
- 5회 : 자원활동가의 윤리
- 6회 : 이주민 인권 활동가 경험 나눔 및 활동계획
- 7회 : 수료미사

※ 향후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동영상 강의를 통한 비대면 강의 추구

☐ 기수별 활동가 배출현황

- 1기 : 32명(16개 본당, 3개 기관)
- 2기 : 39명(17개 본당, 4개 기관)
- 3기 : 45명(23개 본당, 1개 기관)

(3) '1본당 1난민가정 돌봄사업' 활동가 지역 모임 및 지역별 활동상황

☐ 지역 모임 : 매월 1회 : 매칭 가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논의

☐ 지역별 활동상황 (총 24개 본당 27가정 돌봄)

- 1~2지구(구리엑소더스) : 6개 본당 참여 ⇒ 9가정 돌봄
- 3~4지구(의정부엑소더스) : 7개 본당 참여 ⇒ 7가정 돌봄
- 5~8지구(파주엑소더스) : 11개 본당 참여 ⇒ 11가정 돌봄

- (4) ‘1본당 1난민가정 돌봄사업’ 변화된 시대에 대한 준비
- 교육방법 개선 :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하여 준비(온라인 실시간 강의, 동영상 등)
 - 재원확보 방법 고민 : 코로나19로 후원 및 교구지원 감소 대비
 - 난민활동가 지원방법 모색 : 난민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화된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각 나라 문화 이해하기, 상담기술, 언어습득지원 등)
 - 난민 지원 방법 고민 : 생계비 지원외 심리지원도 필요

3. 동두천센터/ 베타니아/ 전진상우리집/ 국제가톨릭센터 연대 강화

- (1) 동두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난민공동체
- 동두천DICC : 동두천성당 국제가톨릭공동체 / 콘솔라또 수도회
 - 전진상우리집 : 난민 미취학 아동 돌봄 / AFI회원, 지역아동사목위원회
 - 베타니아 : 난민 단기 쉼터 / 성가소비녀회
 - 동두천가톨릭센터 : 어린이 청소년 돌봄, ‘1본당 1난민가정’ 허브역할 / 이주사목위원회, 지역아동사목위원회

- (2) 동두천 난민 사도직 연대 - 사제 및 실무자 격월 모임



4. 외국인 법률 지원 단체와 협력 강화

IV. 민족화해

1. 민족화해/평화 교육

-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민족의 화해 문제를 성찰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 코로나 19 상황처럼 기존의 대면 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비대면 교육 방식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현재 온라인 카드뉴스, 동영상 강의 제작 중)
- 적대와 두려움 같은 코로나 19 사태가 확산시키는 비평화적 현상들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지는 화해와 평화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노력한다.

2. 북한이탈주민

- 적대적인 남북관계의 피해자인 북한이탈주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 코로나 19 사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인 그들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긴급 생계, 의료, 청소년 학습 등의 요구가 있는 가정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 본당 민족화해분과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봉사자’ 교육을 지속한다. (사회사목국 차원에서 이주민,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소수자와 연대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1) 현재의 상황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사회에서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탈북민의 다수가 비정규직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코로나 불경기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 여성 탈북민의 경우 한족이나 중국동포 남편 등과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상황에서 소수자인 탈북민과 중국 동포 등에 대한 차별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원 내역

2020년 2월 18일부터 총 25가구에 정기적으로 월 2회(약 110회 비대면/대면 방문) 식재료 지원

(3) 향후 계획

식재료 전달을 정기적으로 이어가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파악할 계획. 특히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경우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

3. 대북 인도적 교류협력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협력하면서 조선가톨릭교협회와 연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 교구 내에서 대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한다.

-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남북협력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면, 교구 내 의료계 종사자, 방역물품 관련자들과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해 실행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금 당장은 실행이 어렵지만, 장기적인 전망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북측이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물량을 확보해 놓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대북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음. 통일부 등 정부 비정부 기구와 잘 소통하면서, 북측의 파트너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



7년 여정 플랫폼 준비에 관하여

'찬미받으소서' 행동

제1판 3쇄 발행 2021년 3월 29일

편 집 | 박진균

발행인 | 이기현 주교(의정부교구장)

편집인 | 조병길(사회사목국 국장)

집 필 | 강주석, 김규봉, 김승한, 김영희, 도현우, 박진균, 이다한, 조병길, 최재영

표 지 | 박진균

발행처 | 천주교 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전 화 | 031-850-1472

2021 © 천주교 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

비매품